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4938

2004年 8月
教育學 碩士學位論文

韓・日 漢字音의 形成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姜 渡 玉

2004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韓・日漢字音의 形成에 관한 研究

姜 渡 玉

韓・日 漢字音의 形成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formation of Korean and
Japanese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2004年 8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姜 渡 玉

韓·日 漢字音의 형성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朴　靑　國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4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姜　渡　玉

姜渡玉의 敎育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金　仁　炫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朴　靑　國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丁　意　祥　印

2004年　6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 ABSTRACT

Ⅰ. 序論 1

Ⅱ. 韓・日의 字音形成過程 5

Ⅱ.1. 中古漢語와 韓日 字音形成과의 關係 6

Ⅱ.2. 日本字音의 形成 9

Ⅱ.3. 韓國字音의 形成 16

Ⅲ. 中古漢語의 聲母와 韓・日 頭字音의 反映樣相 23

Ⅲ. 1. 中古漢語의 音節構造와 音韻體系 26

Ⅲ. 2. 中古漢語의 聲母와 韓・日 頭字音에의 反映樣相 27

Ⅲ. 3. 韓・日 頭字音의 對應 및 異同關係에 대한 考察 40

Ⅳ. 結論 51

※ 參考文獻 53

※ 감사의 글 55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Korean and Japanese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Kang, Do-Ok
Advisor : Prof. Pak, Chung-gook
Major in Japa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troduction, formation process of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f Korea and Japan, and reflective aspect of Chinese characters' pronunciation on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consonants during *Jung-go-han-eum-gi* (medial period of Chinese characters pronunciation) and correlation between Chinese characters of Korea and Japan.

Based on borrowed Chinese characters, Japan expanded their vocabulary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reading Chinese characters by their traditional pronunciation and the Japanese reading of them. According to intermittent exchange due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s, Japan has various ways of reading. *O-eum* and *Han-eum* are representative ways of reading.

Unlike Japan, Korea has a stable principle of correspondence of one pronunciation for one character through continuous exchange with China. Because of it, reading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is easier.

This study examines initial consonants of the *Jung-go-han-oum-gi* (medial period of Chinese characters pronunciation) and reflective aspect on Korean and Japanese initial sound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because of unestablished consonant system, correspondence of aspirated sounds to unaspirated sounds, or voiced consonant to voiceless sounds is not exactly reflected, but it is assumed that there was a relatively regular reflection.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concerning Korean and Japanese consonants focusing o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and reflective aspect. However, it is assumed that pronunciaton of Chinese characters reflected complex influence of *Sang-go-eum* and(sounds of ancient period) *Geun-dae-eum* (sounds of modern period) based on *Jung-go-eum* (sounds of medial period).

And, in comparing initial consonants with Koeran and Japanese head consonants, the result was similar to that of Japanese *O-eum*. However, the *O-eums* keep thick voice with classification of voiced and voiceless sounds while for Korean chinese characters, they are commonly voiceless. Therefore, it can not be said that cor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nsonants is explained with either of *O-eum* or *Han-eum.*

Ⅰ. 序論

日本語는 仮名와 漢字에 의한 日漢混用文으로 表記되며, 語彙는 和語·漢語·混種語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表記 및 語彙 構成의 複雜함 때문에 「現代仮名遣い」나 「送り仮名の付け方」를 正書法 (orthography、正字法)으로 提示하고 있기는 하지만, 個人의 취향에 따라서 恣意的으로 섞어 쓰는 것이 일본어 정서법의 現狀이다. 盛岡健二는 -「日本人은 概念語, 특히 「體言」및「用言」에 대해서 漢字를 대입시키려한다. 즉, 모든 概念語를 漢字로 나타내려고 努力해왔다는 것은 日本人의 意識의 深層에는 어떤 概念語에는 一定한 漢字를 대입시키려는 正書意識이 確立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潛在的 正書法으로써의 漢字가 모든 表記의 背景에 總括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實際로 文章에 표현될 때는 平仮名나 カタカナ나 또는 漢字로 쓰여 지기도 해서 顯在的으로 表層에 나타나는데 있어서는 自由度가 있다.」- 라는 식의 假說을 세워서 日本人의 正書法에 대한 意識을 說明하려 했다.[1] 이는 「文章語」나 識者階層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一見 불안정한 듯하면서도 일본인에게는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일본 정서법의 특징 속에서 일본어와는 不可分의 관계에 놓여 있는 한자의 중요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字種에 따른 語彙의 構成比率은 調査 資料別로 차이가 있으나, 野村雅昭(1993)의「現代の漢語·漢字の位相」[2]에는 다음과 같은 結果가 나와 있다.

①國語辭典에서는 漢語가 다른 語種을 제치고, 半數 以上을 차지한다.

②口語와 文語 중에서는 文語쪽이 漢語 比率이 높다.

③低 年齡層에서는 使用語彙·理解語彙 모두 漢語의 비율은 별로 높지 않다.

④專門語에서는 漢語의 比率이 높지만, 新語에서는 外來語가 漢語보다 더 높다.

---

1)*『シンポジウム日本語④日本語の文字』(1975) 學生社 p. 91~101「正書法の安定と不安定」 -筆者 譯

2) 野村雅昭(1993)『日本語學』7月号 明治書院 p. 34~36

이러한 漢字語彙의 비중과 사용현황은 韓國語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여러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兪長玉(1994)의「日韓兩國語の漢語の對照研究」에 의하면, 兩國의 漢字語彙의 意味領域을 비교한 바,「엣센스日韓辭典」 (1993)에 收錄된 日本漢字語彙 34,015語 중, 77.85% (26,481語) 가 韓國語와 同形이며, 兩者의 意味領域이 거의 같은 한자어휘가 98.79% (26,161語) 라고 한다. 同音異義語가 많고 意味領域이 다른 말도 있기는 하지만 形態上으로는 약 80%정도가 일치하는 셈이라서 部屋、挨拶、峠등과 같은 国字나 宛字등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한자어를 통한 의미전달에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曺喜哲 (1994)의 韓國의「敎育用基礎漢字」와 日本の「常用漢字」와의 比較에 의하면「敎育用基礎漢字」에는 選定되어 있으나 「常用漢字」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10.8%(194字) 인데 비해, 常用漢字에는 있지만 敎育用基礎漢字로는 選定되있지 않은 것이 17.4%(339字) 라고 한다. 數値上으로는 兩國의 中等敎育 過程까지 배워야할 漢字의 約80%~90%정도가 一致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敎育內容과 효율 면에서 보자면 韓日 兩國의 中等敎育 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한자의 힘(=漢子力)은 사뭇 달라진다. 1972年에 制定된 한국의 「敎育用基礎漢字」는 中學校 900字、高校 900字를 漢文敎科 시간에만 가르치지만, 漢字使用의 노력 목표로써의 標準的意味를 지니는 일본의 「常用漢字」(1981年)는 國語敎育 과정의 일부로서 小學校때부터 1학년 80字、2학년 160字 · · · 와 같은 식으로 일찍부터 교육과 생활 속에서 한

[表 1] 資料別 語種比率에 관한 調査

『言　　海』: 和語(55.8%) 漢語(34.7%)	『高校敎科書』: 和語(18.3%) ,漢語(78.3%)
(1891) 混種語 (1.4%) 外來語(8.1%)	(1974) 混種語 (0.8%) 外來語(7.6%)
『例解國語辭典』: 和語(37.1%) 漢語(49.5%)	『兒童作文』: 和語(46%) 混種語 (17%)
(1956) 混種語 (2.2%) 外來語(7.8%)	(1970-79) 漢語(30%) 外來語(7%)
『角川國語辭典』: 和語(36.6%) 漢語(53.6%)	現代雜誌90種: 和語(36.7%) 漢語(47.5%)
(1969) 混種語 (3.5%) 外來語(6.%)	(1956) 混種語 (6.0%) 外來語(9.8%)
『新語辭典』: 和語(1.9%) 漢語(28.8%)	會話用語彙: 和語(46.9%) 漢語(40.0%) 、
(1980) 混種語 (11.7%) 外來語(57.6%)	(1980) 混種語 (3.0%) 外來語(4.5%)

자를 접할 수가 있어서 일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石田敏子 (1986)는「英語 · 中國語 · 韓國語 圈別 日本語學力の分析」에서 같은 漢字文化圈인데도 韓國人 學習者의 漢字力, 즉 日本漢字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는 힘과 意味 理解 能力이 意外로 낮다」고 指摘한 바가 있다.

日本語는 韓國語와 文章構造가 [S+O+V]로 一致하고, 系統上으로도 다분히 類似하며[3], 또한 文化的으로도 상호간 理解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韓國人의 日本語學習에 있어서는 상당한 플러스적 要因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好條件에도 불구하고, 日本語는 쉽다고 인식되는 것만은 않는다.

韓國人의 日本語 學習上의 具体的인 問題点을 把握하기 위해, 學習者를 學習 期間別로 나누어 日本語學習上의 障碍分野를 調査한 다음 表[4]를 參考해 보면 학습기간의 정도에 관계없이 漢字問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讀解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表 2] 日本語 學習上의 障碍要素

	2-6ヶ月	7~12ヶ月	1年~2年	2年以上	平均 (%)
漢 字	**45.8**	**41.4**	**46.0**	**31.8**	**41.5**
外来語	15.7	12.1	23.8	24.2	18.9
文 法	16.9	27.6	14.3	13.6	17.8
会 話	8.4	13.8	7.9	21.2	12.6
発 音	12.1	5.2	6.4	6.1	7.8
聞き取り	-	-	-	3.0	0.7
読 解	**1.2**	-	**1.6**	-	**0.7**
合 計	100	100	100	100	100

漢字는 그 특성상 形 · 音 · 義의 統一体로서 理解해야 하므로漢字問題를 字義、字形、字音으로 大別하여 볼 때, 앞서 살펴본 바대로 韓日 兩 國語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漢字語彙는 그 형태와 의미에 있어서는 一致率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한자어휘를 통한 文章의 독해는 어느 정도 가능지만, 그 音에 있어서는 별개의 難題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李基文 (1998)『國語史概說』太學社 : 35-36

4) 주지연 (2000)「社會人을 위한 日本語 敎育 實態 調査 및 考察」 世宗大學校 大學院

다음의 [表3]은 日本 現地의 日本語 학습자 중에서, 既習 漢字 600字 以上인 中級 정도의[5] 外國人 學生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 結果의 一部를 石田敏子의 『日本語の教授法』(1995:102)에서 참고한 것인데, 字形과 字意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字音, 즉 일본어의 한자 읽기 문제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漢字圈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音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일본어를 통한 자유로운 意思疏通에의 捷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表3] 海保博之篇(1984:172)「漢字を科學する」有斐閣

漢字에 關한 설문조사 結果 (左 -漢字圈응답률, 右-非漢字圈응답률 %)			
		(예)	(아니요) (보통이다)
2. 漢字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36 , 79)	(64 , 13) (0 , 8)
3. 日本生活에 漢字 知識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까?		(100 , 69)	(0 , 27) (0 , 6)
5. 漢字學習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複數 応答者가 많았다.)			
	읽는 방법	**73**	**41**
	쓰는 방법	27	46
	筆 順	0	3
	意 味	3	18
	暗記方法	0	10
	조합하기	0	8

이상에서 살펴본 바, 韓國과 日本에 있어서 漢字·漢字語는 語彙構成要素로써 重要한 役割을 担当하고 있으며, 그 쓰임새 또한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韓國人 日本語學習者의 學習上의 最大 難点으로 일본한자의 音讀 문제가 제기되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된 원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 첫째 원인은 한글 專用化政策에 따른 漢字語彙의 한글 표기가 日常化되어, 漢文教育 中心의 教科課程 以外에는 漢字를 접할 機會가 적다는 점이다.

둘째로 韓國語와 中國語의 漢字音은 原則적으로 一字一音인데, 日本語의

5)『日本語教育辭典』(1995)에 따른 학습자의 레벨
(1)初級 : 約200~300時間의 授業時間을 거친 단계. 基礎的文型, 語彙 約1500~2000語. 漢字 約 500字의 習得、言語의 4 技能 定着이 目標. 音聲面을 重視한 練習이 주로 이뤄짐.
(2)中級 : 語彙 約5000~7000語、漢字 約1000~1500字 程度 習得、讀解教材中心, 字書를 使用하여 自學自習이 가능케하도록 함이 目標.
(3)上級 : 語彙 約7000語、漢字 約2000~2500字. 실물 教材를 使用하며 論文등의 작성 指導.

漢字는 複數의 音讀방법 이외에도 訓讀과 音訓混讀(重箱讀み · 湯桶讀み) 및 例外的인 音讀 方法도 상당해서 韓國人 學習者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筆者는 이와 같은 점에 의거하여 일본어 학습에 소요되는 時間과 努力을 節減할 수 있는 方案의 하나로써 漢字音形成에 관한 考察을 통해 韓 · 日 漢字音의 대응 관계와 効果的인 漢字音習得 方法을 模索하고자 한다.

漢字音에 대한 硏究는 대체로 韓國 漢字音(이하, 韓國字音) 과 日本 漢字音(이하, 日本字音) 의 基層을 이루고 있는 中國 漢字音(以下、中國字音 · 漢語音) 에 관한 問題와 그 中國字音의 聲母와 韻母가 韓國語와 日本語에 어떻게 傳來 · 反映 되었는가의 受容樣相을 둘러싼 韓國字音과 日本字音과의 比較硏究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韓國字音의 基層에 대한 代表的 硏究로는 H.Maspero (1920)와 滿田新造 (1926) 등의 5世紀 南北混合音說, 有板秀世 (1936)의 10世紀 宋代開封音說, 河野六郎(1968)의 8世紀 唐代長安音說, B.Kalgren(1954)과 朴炳采 (1971)의 7世紀初 切韻音을 母胎로 한 北方中原音說등이 있다.[6] 이에 관해서는 본론에서 詳細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韓 · 日 漢字音의 比較에 대해서는 辛容泰 (1980), 車柱鎬(1984), 玄淑子 (1987), 朴美鏡(1998), 禹燦三 (2002), 李京哲(2003)등의 硏究를 살펴보았다. 辛容泰는 中古漢語와 傳乘字音과의 關係에 대해, 車柱鎬는 音韻 變遷과 韓日字音의 대응 관계에 대해, 玄淑子는 現代字音과의 比較에 대해, 禹燦三은 효과적인 漢字音 指導法에 대해 각각 力点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韓國語와 日本語는 歷史 · 文化 · 地理的으로 隣接한 中國의 「漢字」라는 동일한 文字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해서 韓 · 日 의 字音間에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疑問에서 출발하며, 韓日漢字音의 형성과

---

6) 李京哲(2003)『韓 · 日漢字音体系の比較硏究』보고사 p. 15-20
오일주(2002)『韓國學術社叢書1-國語學硏究50年』혜안
李潤東(1977)[『韓國漢字音に關する硏究』螢雪出版社 p. 9-46

대응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자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研究方法은 先行研究를 檢討, 韓國과 日本의 漢字音의 傳來 및 형성과정과, 兩國 字音의 母胎가 되는 中國漢語의 韓日 兩 國語에의 反映樣相을 考察하고, 兩國의 音韻構造 및 音韻 變遷 過程 등과 더불어 韓國字音과 日本字音이 相違하게 나타나게 된 經緯 등을 살펴, 常用漢字 범위 내에서 兩國字音의 對應 關係를 照明하고자 한다.

Ⅱ. 韓日 漢字音의 形成過程

中古漢語의 韓日 字音에의 反映樣相과 韓日 字音間의 對応關係를 照明하기에 앞서, 中國語 音韻史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兩國 자음의 형성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字音의 形成過程에 대한 通史的 考察을 통해 그 性格에 대한 理解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언어의 成立과 變化는 政治史的인 時代區分과 반드시 竝行해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연구는 文獻資料에 依存하기 쉽기 때문에 資料의 선택과 그 資料에 대한 解釋방법의 여하에 따라 異見이 있을 수 있다. 韓國語 · 日本語 · 中國語(漢語)의 時代區分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도 一般化된 論을 參考로 하여 中國語 · 日本語 · 韓國語의 순서대로 字音의 形成過程을 살펴 나가겠다.

Ⅱ.1. 中古漢語와 韓 · 日의 字音 形成

漢語는 上古부터 中古、中世、近代、現代에 이르기까지 簡素化해 왔고 그 중에서 韓國과 日本에 漢字가 전래된 時期는 上古漢語期에서 비롯되어 中古

漢語期에 해당하는 五世紀～十世紀에 걸쳐서 그 基層이 成立되었다.

中國漢語의 歷史는 殷朝(약3500～3000年前) 以後부터 論議되고 있는 데, 前述한 것처럼 대체로 上古音, 中古音, 近古音(近代) , 現代音의 四段階로 구분된다. 上古音은 『詩經』의 用韻과 文字의 諧聲體系를 근거로한 再構音(reconstruction)을 말하며, 中古音은 切韻系韻書인『廣韻』에 反映되있는 字音体系를, 近古音은 1324年周德淸이 編纂한『中原音韻』에 反映되있는 字音体系를 말한다. 現代音은 標準中國語(普通話)를 포함한 北方 方言(官話)、吳方言、湘 方言등의 7大 方言을 이른다. 中國 漢語史의 分岐에 대해서『中國音韻과 朝鮮漢字音硏究』7)를 參考하여 몇몇 學者의 견해에 따른 音系를 아래의 [表 5]에 나타내고、韓日에의 字音傳乘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고 하는 中古漢語音의 成立背景과 「切韻系韻書」인 『廣韻』과 切韻体系의 音韻을 図化한 『韻鏡』의 資料性에 대해서 簡單히 言及하고자 한다.

[表 4 - 漢語史의 分岐]

王力	藤堂明保	H.Maspero	文璇奎8)
* 先秦音系 前206年 * 漢代音系 前206～後220 *** 魏晋南北朝音系** **220~581年** ***隋-唐音系** **581～836年** ***挽唐-吳音系** **836～936年** *宋代音系 960～1279年 *元代音系 1279～1368年 *明淸音系 1368～1211年 *現代音系 1911～	*太古漢語 前15～前10世紀 *上古漢語 前10～後4世紀 ***中古漢語** **後5～10世紀** **六朝-隋、唐** *中世漢語 後11～16世紀 *宋 · 元 · 明 *近代漢語 後17～20世紀	*上古音 前期-上古音 後期-後3國時代 ***中古音** **前期-六朝、唐** **後期-唐末、宋代** *現代音 前期-金、元、明 後期-明末、淸	*上古漢語 太古漢語：太古-殷 先秦漢語：周 · 秦 漢魏漢語：魏 ***中古漢語** **中古前期:晋,南北朝** **中古後期隋唐** *近古漢語 近古前期:五 · 北宋 近古後期:南宋 · 元 *近代漢語 近代前期：明 近代後期：淸

7) 『李得春敎授40周年記念論文集』 (2003) 亦樂 p. 46－47

表內의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時期가 대체로 中古漢語期에 해당한다. 四世紀부터 六世紀의 中國은 南北朝의 混亂期기였고, 그만큼 言語的으로도 多樣한 地域의 方言이 登場했다. 그 후 隋에 의해 南北朝가 統一됨으로써 混亂이 멈추게 되자, 흩어진 여러 지역의 다양한 言語에의 統一에 대한 必要性이 대두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中國 最初의 韻書인『切韻』[9]이다.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종류의 增訂本이 나왔으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廣韻』(原名-『大宋重修広韻』) 이다. 이『切韻』에서 『廣韻』(1008)에 이르는 韻書를「切韻系韻書」라 칭하며, 切韻系韻書의 音韻体系를 反映하는 漢字音을「中古音」이라 부른다.

이「切韻系韻書」들 중에 『廣韻』만이 完本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廣韻』은 韻母(母音)에 대해 口腔의 開合、廣狹、發聲時의 高低、强弱등의 纖細한 부분까지를 區別하여 206韻으로 分類해 놓았으며, 唐代에는 이것이 切韻式音韻図로 發展했다. 거기에 10世紀頃、宋代에 들어서는 『廣韻』에서 미진했던 聲母(頭子音)의 체계에 대한 부분도 보완되어 聲과 韻을 一覽할 수 있는『韻鏡』[10]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韻鏡』은 韓·日字音의 反映關係를 밝히는 데에 있어 貴重한 硏究資料로 江戶時代 日本의 國學者들은 日本의 吳音과 漢音의 系統 硏究에 이『韻鏡』을 사용하여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韓國字音과의 關係를 체계적으로 硏究한 여러 學者들도 이용했다. 玄淑子(1987:74)는 「韻鏡은 頭音分類가 詳細하며 『廣韻』에서 別立하지 않았던 等韻을 開合別로 各図로 나누어, 等呼別로 聲韻의 相互關係를 体系的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韻母의 構造上 介母에 따른 音韻的區別을 考察하는 데에 便利하고 韓日漢字音의 相關關係를 알아보기에 適切하다」하여 그 資料的 価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

8) 文璇奎(1987)『中國古代音韻學』民音社 p. 33

9) 隋 仁壽元年 (601年) 에 陸法言 외 9名의 學者에 의해 編纂된 韻書로 一種의 發音辭典이다.

10)『韻鏡』-作者未詳、唐末 혹은 五代 무렵(10世紀)에 成立했다고 전해짐. 中国 本土에서는 일찍이 消失됐지만、日本에서는 鎌倉時代에 전해져서 奈良의 転経院에 所蔵되어 있었는데 明了房信範(1223~1296年)이 발굴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됨。

이상과 같이 韓日 字音은 中古漢語期에 韓·日 兩國이 中國과 活發히 交流하면서 音借文字로써 漢字(傳承字音)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그것을 內部化함으로써 각각의 字音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中古漢語期의 문헌자료로는『韻鏡』이 韓日 字音 연구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Ⅱ.2. 日本字音의 形成

日本語의 形成과 歷史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外國 및 外國語와의 交涉이라고 말할 수 있다. 佐藤喜代治는 古代에 있어서 漢字·漢語·漢文의 勢力은 日本語의 全 分野에 걸쳐, 現代에까지 그 影響이 미쳐 있어서, 現代日本語의 問題는 漢字·漢語 問題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해결에는 中國語의 歷史·文化를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말한 데에[11]同義한다. 따라서 日本字音의 形成과 그 性格을 파악하기 위해 中國漢音史와 關連지어 考察하고자 한다. 日本字音의 形成과 그 性格의 특징은 層別 伝承에 따른 中層性을 들 수 있는데 林史典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마치 오래된 土石 위에 차츰차츰 새로운 土石이 쌓여서 층을 이루듯 伝承過程을 통해서 서로 競合하면서 複層的으로 전해져 왔다. 그 主層을 이루는 것이 吳音과 漢音인데, 吳音系 字音의 전래 以前에도 더 오래된 특징을 갖는 字音이 전해져 있었고, 漢音系 字音 뒤에는 宋代 以後의 漢音을 母胎로 하는 唐音系 字音을 지니게 된다. 日本字音은 內容的으로 대단히 複雜하다. 이 점에서는 唐代長安音의 影響이 壓倒的이라고 하는 現代의 韓國字音이나 베트남字音과 비교할 때 극히 特徵的이다.」[12]

라고 언급하고 있다. 긴 세월동안 中國漢音의 歷史的 變遷과 地域的 特徵

11)「日本語の時代的変遷」(1975) 『シンポジウム日本語日本語の歷史』學生社 p. 73~139

12) 中田祝夫 (1982)『日本語の世界4』一日本の漢字篇中央公論社 P. 375~392

을 반영하여 형성된 重層的인 音의 堆積層의 併用은 日本字音만의 特色의 하나이다.

Ⅱ. 2. 1. 吳音의 形成

日本에 漢字가 언제쯤 輸入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지만 韓半島를 經由[13]하여 六世紀末 이내에 伝來됐다고 보는 것이 吳音이다. 吳音은 5 · 6世紀 中國 南北朝時代의 江南方言인데, 楊子江 下流의 江南地方은 예부터 「吳」라고 불렀기에 日本에서는 奈良時代 以來「吳音」이라고 명명해왔다.

그런데 日本語에는 吳音 以前에도 推古朝 以前의 碑文과 古代歌謠의 記錄에 利用된 漢字音이 存在했다. 그것은「古音」으로 通用되며, 그 가운데 南北朝 以前인 3~4世紀 무렵의 漢字音이 万葉仮名에 약간 남아있다. 그리고 大陸으로부터의 急激한 文化交流의 增加와 함께 導入된 것이 吳音系 字音이다.

百濟를 경유하여 전래됐다고 하는 吳音은 불교와 함께 奈良時代 初期부터 約５００年間, 生活과 密接히 關係한 依 · 食 · 住 및 動 · 植物등의 모든 方面에 거쳐 폭넓게 사용되어 日本字音의 根底로써 주된 音層을 이룬다. 이 吳音은 일찍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平安時代의 漢音 共用化 政策에도 불구하고 口語로서 정착하여 오늘날까지 日常用語나 일찍이 渡來한 事物 名稱이나 불교관계 語彙, 오래된 地名등에 많이 남아 있다.

---

13) * 漢字의 전래에 대해서『古事記』『日本書紀』에는 백제의 王仁 博士가 渡日하여 『論語』『千字文』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欽明天皇 (553年) 때 百濟 聖王이 佛像과 經典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大野晋는 百濟가 중국의 남방인 六朝와의 交涉을 통해서 배운 字音을 日本에 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推古期 遺文과 『万葉集』의 券1과 券2의 用字法이 一致하는 점을 들어 아주 오랜 漢代(대체로 1세기)의 上古漢音 체계가 投影되어있다고 보고, 그러한 오래된 上古漢音이 日本에 들어온 것은 漢四群의 하나인 낙랑군이 멸망 되어 가는 段階에서 新羅 · 百濟로 잠입해 온 文化人이 日本에 到來하여 낙랑군의 학문을 계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推測했다.

上田雅昭偏 (1975) 『古代文化の探究-文字』社會思想社 p. 258~266

Ⅱ. 2. 2. 漢音의 形成

中國에서는 南北朝時代 후、隋가 발흥하고 이어서 唐이 일어났다. 日本에서는 遣隋使 · 遣唐使를 派遣하여 先進文物을 積極的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 時期의 留學生들의 귀국과 함께 유입된「漢音」은 그때까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吳音보다 그 양이 많고, 政府의 유교 및 新學問 奬勵(793年) 정책에 따라 組織的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当時 中國의 標準音이었던『韻鏡』에 의해 体系化된 隋 · 唐의 北方音은 (当時의 수도는 長安、現在 中國 落陽地方) 7 · 8世紀頃、平安시대 (794ㅡ1192年) 에 들어와서 前述한 바와 같이仏教를 비롯한 學問 硏究가 活發해짐에 따라 日本의 留學僧들에 의해 日本으로 直輸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漢音[14]이다.

隋 · 唐의 北方音系를 반영한다고 하는 이 漢音 (長安音) 은「正音」으로 奬勵되서 四書五経 · 日本書紀등과 같은 漢籍 · 學文 分野에서 專用되게 되었다. 그러나 使用者 層은 貴族階級에 그쳐, 讀書音으로서의 地位는 굳혔지만 公用語로서 널리 확산 되지는 못했다. 이는 一般庶民들 사이에는 吳音이 生活用語로서 널리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文語의 世界에서는 佛書는 吳音이고 儒書는 漢音으로 구별해서 쓰였다. 그러다가 明治 五年 의무교육 실시로 그때까지 士族의 교육기관이던 藩校와 農 工 商을 위한 寺子屋로 二元化 되 있던 教育制度가 西歐의 影響으로 미국식으로 一元化[15]하게 됨으로써 一部 知識人의 전유물이었던 漢字를 다수 大衆이 접할 수 있게 된다. 그 일원화 된 새로운 學制에 따라서 그때까지 책의 성격에 따라서 吳音과 漢音으로 분류 되어 있던 것이, 漢學에서 洋學으로 學問의 主流가 변화하는 속에서 混亂이 생기게 되어, 주로 두 가지의 音讀 方法으로 읽혀져 왔던

---

14)「漢音」이란 名称은「漢」時代와는 無關함. 唐代의 음을 漢音이라 부르는 것은 원래 일본에서는 중국을 漢字 · 漢語 · 漢人과 같이「漢」이라 불러온 데에 기인한다. 이 漢音을 당초「新音」이라 칭한데 대해서, 吳音은「古音」이라고도 불리며「和音」이라고도 불린다.
野村雅明(1984)『日本語の働き』筑摩書房 p. 90~98

15) 明治35年, 小學校의 就學率이 98%를 넘어 3 7年에는 전국 共通 국정 教科書가 使用되게 되어, 漢語 音讀의 基準이 되었다.

漢字語는 마침내 하나의 음독으로 통일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단어 내에서는 조합하는 앞뒤의 한자를 漢音+漢音 또는 吳音 + 吳音 끼리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漢音과 吳音의 混交語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歐美 문화 세력의 여파에 따른 漢學의 쇠퇴와 관련하여 字音읽기 원칙이 흔들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明治期에는 医學등의 近代 學術用語나 産業用語 및 口語世界에도 漢語가 流行하게 되었으며, 이후 근·현대화를 거듭하면서 科學化·機械化·産業化·情報化 등과 더불어 생겨난 漢音式 용어들이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Ⅱ. 2. 3. 唐音의 形成과 性格

中世에 전해진 唐音(唐宋音)이란 唐代音·宋代音이란 意味가 아니라 唐 以後의 새로운 字音이라는 意味이다. 日本에서는 唐 滅亡 以後에 宋·元·明으로 바뀌어도 中國人을 唐人이라 부른 까닭에 唐音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唐音은 中國 南方音이 전해진 것으로 [表4]의 漢語 史分岐에 나타낸 바와 같이 現代中國語의 發音과도 가장 가까우나, 日本語에서는 禪僧 關係 用語나 13世紀를 前後한 当時(鎌倉時代·宋末·元初期) 輸入된 器具나 食器등의 一部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이처럼 唐音이 특수음으로써 그 사용이 제한적인 것은 日本式 漢字音의 체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16] 唐音의 特徵 (橋本信吉1983 : 299) 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 [ts][s]系の歯頭音の声母の[i]→[ɯ]

: 例) 椅子(いす) 箪笥(たんす) 杏子(あんず)

2) [ŋ]の韻尾を「ウ」「イ」→「ン」

: 例) 南京(なんきん) 普請(ふしん) 明朝(みんちょう) 看経(かんきん)

3) 匣母[ɦ]→ア行、暁母[h]→ハ行

16) 野村雅明 (1984)『日本語の働き』p. 95-98

: 例) 胡乱(うろん)　　杏子(あんず)　行灯 (あんどん)

4) 入声語尾[p][t][k]→消滅 · 促音化

: 例) 行脚(あんぎゃ)　竹篦(しっぺい)　喫茶(きっさ)

5) 歌 · 戈韻の[a]→[o], 桓韻[wan]→[won]

: 例) 火燵(こたつ)　和尚(おしょう)等　暖簾(のれん)

Ⅱ. 2. 4.　慣用音의 形成과 그 性格

日本字音에는 吳音系 · 漢音系 · 唐宋音系와 같은 各層의 堆積以外에도 日本에서의 獨自的인 音韻変化에 의해 一般化된 字音이 있는 데 이를 慣用音이라 칭한다. 吳音 · 漢音 · 唐音의 과는 또 다른 慣用音의 起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諧聲聲符의 類推에 의한, 즉 漢字의 構成部分의 音에 의한 誤用音이 굳어져서 通用되는 것.「白姓讀み」라고도 한다.

消耗：ショウコウ→ショウモウ　　口腔：コウコウ→コウクウ

弛緩：シカン→チカン　　撹拌：コウハン→カクハン

残滓：ザンシ→ザンサイ　　矜持：キョウジ→キンジ

情景：ジョウケイ→ドウケイ　　撒水：サッスイ→サンスイ

2) 濁音이 清音으로、清音이 濁音으로 바뀐 것

解：ケ→ゲ(解熱ーゲネツ)　　染：ゼン→セン(伝染ーデンセン)

剖：ホウ→ボウ(解剖ーカイボウ)　　芭：ハ→バ(芭蕉ーバショウ)

験：ゲン→ケン(実験ージッケン)　　研：ゲン→ケン(研究ーケンキュウ)

3) 長音이 短音으로、短音이 長音으로 바뀐 것

寓：グ→グウ (寓居ーグウキョ)　　宮：ク→グウ(神宮ージングウ)

裕：ユ→ユウ(余裕ーヨユウ)　　住：ジュ→ジュウ(住所ージュウショ)

通：トウ→ツウ(通行ーツウコウ)　　鍮：トウ・ツ→ (真鍮ーシンチュウ)

柱：チュ→チュウ(電柱ーデンチュウ)　枢：ス→スウ(枢機卿ースウキキョウ)

4)中国漢語에서 오지 않은, 출처가 不明한 것

便：ビン (呉音-ベン、漢音-ヘン)　打：ダ (呉音ーチョウ　漢音-テイ)

5)漢音과 呉音이 섞인 것

乙：オツ (呉音-**オ**チ、漢音-イ**ツ**)

東**京**：トウキョウ (呉音-キャウ＞キョウ、漢音-ケイ)

言**語**：ゲンゴ (呉音-**ゲン**ギョ、漢音-ゴン**ゴ**)

力士：リキシ(漢音-リキ、呉音-シ)　次第：シダイ(呉音-シ、漢音-ダイ)

이상으로 관용음을 몇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慣用音은 中國語의 發音을 充實히 反映하려고 努力한 吳音・漢音이 日本의 音韻体系에 의해 변화하는 過程에서 생겨난 過渡音일수도 있고, 오랜 동안 日本人의 입에 膾炙되어 토착화된 가장 日本語다운 字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日本語의 重層的인 形成過程을 고찰해보았는데, 그 主層을 이루는 것이 吳音과 漢音이며、이렇다할 全体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 前後에 古音과 唐音 (唐宋音)이 가미되어 복잡한 音讀방법이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Ⅱ.2.5. 日本字音의 특징

河野六郎는 字音의 本質的인 性質에 대해서「字音は文字の音的符牒とも言うべき、漢字自体の音的valueで, 通常の談話に用いられる生きた口語音とは一往別のものである」(中田祝夫　1982：300)라고　말한다. 漢字는　表語文字 (logograph)로 一字가 한 단어를 代表하며, 더구나 字形 그 자체가 한 단어

의 意味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문헌에 의해 전해진 말이 살아있는 口語로서는 死滅해 버렸더라도 文字로부터 그 말의 뜻을 건져낼 수 있을 뿐 아니라 必要에 따라서 字音은 나중에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字音의 範囲를 보여주는 韻書라고 불리는中國의 辭書[17]에도 必要에 따라서 增補·改正한 人工的인 字音도 포함 되어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는 일이다.

中田祝夫(1982 : 302)는 字音의 valu에 대해서「訓」이 日本語로서의 valu라고 말한다면,「音」은 漢字와 함께 도입된 漢字 自身의 中國語的인 value라고 하여, 音과 訓의 關係를 트럼프 카드에 견주어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字音의 音과 訓의 關係는 마치 카드의 앞면 (音讀み)과 뒷면 (訓讀み)에 비유할 수 있다. 카드에 따라서는 뒷면이 흰 것(「訓」이 거의 쓰이지 않는 漢字)도 있는가 하면, 앞면이 흰 것(「音」이 거의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는 앞뒷면을 다 쓸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既成 結合 以外에도 새로운 結合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된다.

表-表(音＋音) ：国家、憲法、平等、法律、科学

裏-裏(訓＋訓) ：相手、物語、初恋、塩味、根本

表-裏(音＋訓)：楽屋、座敷、台所、本場・・・(湯桶読み)

裏－表(訓＋音)：相性、身分、荷物、値段、黒幕・・・(重箱読み)

表↔裏：草原 (そうげん↔くさはら) 仲人 (ちゅうにん↔なこうど)

裏→表：返事 (かえりごと→へんじ) 物騒 (ものさわがしい→ぶっそう)

위와 같이 그 組合型은 基本的으로 네 가지이지만, 카드의 앞뒤를 뒤집으면 새로운 語形이 생길 수도 있다. 漢字의 이러한 複雜한 사용법은 뒤쪽의 利用을 習慣化해 온 일본어만의 특이한 現象이다.」

이는 日本漢字에 있어서, 音讀의 多樣性과 複雜性, 특이성을 理解할 수 있는 데 있어 유용한 비유라고 생각된다.

---

17) 中國의 辭書 : 漢字의 性質上, 그 形、音、義의 세가지 면에서 考察하는 漢人의 古典研究 方法에 따른 학문서. ①漢字字体 解說-字書 ②漢字字音 解說-韻書 ③古典語 注譯-訓詁 字書 ④故實을 分類、列擧하는 類書 ⑤以上의 資料를 適切히 한권으로 總合한 實用辭書로 나뉜다.

氏는 日本字音 고유의 「valu」는 日本의 漢字의 發音의 一種이기도 하면서 意味 解說의 역할도 다하고 있는「訓讀み」(「和訓」「國訓」「字訓』라고도 함)에 있다고 했는데, 필자의 小見으로는 訓讀은 물론이며 日本이라는 土壤에서 日本人에 의해 再構된 「音讀み」에도 그에 相当한 valu는 있다고 생각 된다. 이것은 韓國字音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音讀에도 訓讀만큼의 valu가 있다고 하는 것은, 元來 漢語音 그 자체로써가 아니라, 韓日 兩國語의 音韻変遷과 音韻構造에 有機的으로 상응하며 言衆과의 相互作用의 결과로써 存在하는 現實字音으로서, 語彙의 50% 以上을 차지하는 社會 · 歷史 · 文化遺産의 所産으로서의 韓日字音이기 때문이다.

Ⅱ.3. 韓國字音의 形成

韓國字音에 있어서도 일찍이「吏讀」[18]「鄕札」[19]과 같은漢字의 音과 訓을 借用한 土着的인 表現方法이 있었고 通史的으로 音의 堆積層이 형성될 만한 蓋然性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韓國字音도 日本字音 못지않은 至大한 中國文明의 影響下에서 漢字 · 漢語를 借用하여 中國漢音의 時代的 · 地域的 特徵에 따라서 여러 가지「音의 堆積層」뿐 아니라 訓借도 엄연히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字音에는 단일한 音讀 方式만이 남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韓國에의 漢字 전래와 字音形成등의 過程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18) 吏讀 (吏頭 · 吏吐 · 吐) : 「壬申誓記石」(732年)에 나타난 漢字文의 韓國式 語順 配列의 誓記体文을 骨格으로 하여 文法格이나 語尾등을 가미하여 文法素를 補完하는 方法으로 그 체계가 점차 발달하여 한글 창제 이전까지 가장 중요한 表記法으로 이용되었다.
例)慶州南山新城碑(591年) -「南山新城作節如法以作」(節=디비(때), 以=~로)

19) 鄕札 : 「鄕」이란 中國에 대한 文化的 對立概念으로, 新羅人이 중국에 對立하여 무엇에나 「鄕」을 앞에 붙여 사용했다.「札」이란「書札」.
高麗初 均如大師의 11首가「三國遺事」에 收錄되어 남아있다.
例)處容歌- 東京明期月良 [東京 pʌrkii tara] 夜入伊遊行如加 [pam tiri noni taka]

Ⅱ.3.1. 韓國字音의 形成過程

古代 韓國에 漢字가 들어온 明確한 時期와 經路는 不確實하나 具体的인 記錄을 통해서는 箕氏朝鮮때부터라고 把握된다. 箕氏는 殷의 遺民으로 東國通鑑에 따르면 箕氏가 朝鮮에 올 때에 詩書 · 礼樂 · 医巫 · 引用 · 卜筮 등과 5千名의 中國人이 함께 따라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地理的 · 政治的으로 隣接하여 中國 文化가 直接移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紀元前 3 世紀경, 漢나라의 衛滿이 箕氏를 몰아내고 衛滿朝鮮을 세웠으며, 紀元前 3世紀末에는 漢武帝가 衛氏朝鮮을 討伐하여 漢四郡 (樂浪、眞蕃、玄菟、臨屯)을 設置하여 隣接한 貊族이나 韓族에게 影響을 끼쳤으며, 貊族과 韓族은 小國家의 分列과 統合을 통해서 高句麗를 세워 中國을 驅逐하였으며, 三韓地方에서는 北方에서 流浪해 온 貊族 一派가 馬韓을 支配하여 百濟를 建國하고, 辰韓에서는 韓族이 新羅를 세웠다.

高句麗에서는 國初부터『留記』라는 100券의 史書가 전해 내려와 600年에 新集5券으로 纂修되고,「太學」과「扃堂」이라는 機關이 세워져 漢字學習을 奬勵했다. 百濟에서도 일찍부터 漢字 使用이 盛行해서 375年에는 史書인 書記』를 編纂하고, 經書 · 佛經등을 가르치기도 하고, 阿直岐 · 王仁 等이 차례로 日本에 가서 漢字를 전했던 일도 있다. 新羅는 地理的 條件上 中國과의 直接 交涉에는 相当한 制約이 있었던 만큼, 漢字의 輸入이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積極的으로 中國文化의 導入에 주력하여, 智證王代에는 方言으로 呼称되던 王呼를「王」이라 칭하였고, 統一新羅 景德王(757年) 代에는 모든 地名을 中國式을 본떠 二字로 改名하고 官名을 漢字로 改称했다. 李基文은 韓國에서漢字 音讀 習慣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深化되었을 것으로 推測한다.[20] 물론韓國에서도 訓讀 方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韓半島의 古代 三國에서는 漢字를 가지고 自國語를 表記하려고 努力하

---

20) 李基文『國語史概說』1998年 太學社 p. 43~46
例)大邱縣 本達句火([tar-ku-pur) 雲峰縣 本母山([əm-moi)

였고 그 漢字 借用法은 表音的 機能과 表意的 機能의 두 가지가 있었다. 前者 (表音的機能) 는 六書의 하나인 仮借의 原理를 이용하여【古 : /ku/】처럼 그 字義와는 關係없이 音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음의 다른 漢字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後者 (表意的機能) 는 漢字가 지니는 表音的 機能은 버리고 表意的機能만을 살려서 그 意味를 固定化시킨 것이다. 古代韓國語의 모습은『三國史記』『三國遺事』등의 資料를 토대로 옛 地名、「鄕歌」、「吏讀」을 통해 斷片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水 : /mul/】처럼「믈」이란 單語를 나타내기 위해서「水」의 '釋'(訓、새김이라고도 함) 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렇게 사용된 漢字를「釋讀字」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訓讀方法이다.

兪昌均(1987:9-27) 은「借用文字의 表記에 대한 考察」에서 三國史記에 실린 高句麗의 地名 · 人名의 表記 例를 訓借字와 音借字로 나누어 兩者를 對照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指摘한 바 있다.

① 동일한 漢字가 音과 訓으로 兼用되는 일은 거의 없다.

② 音借일 場合、字畵이 單純하고 頻度가 많은 常用 字類가 選擇되는 경향을 보인다. (訓釋에는 그런 傾向이 보이지 않음)

③ 地理誌의 地名으로 보아, 音借字는 頻度가 있는 데 訓借字는 接尾詞를 제외하고는 一回的이다.

위의 指摘은 高句麗가 古代 韓半島에서 차지했던 位置와 關連지어 생각해 볼 때, 韓國字音의 形成 方向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古代韓國에서의 문자의 展開樣相에 있어서, 高句麗는 韓半島 北部에서부터 中國 東北部의 남쪽에 位置하고 있었기 때문에 中國과의 교류는 아주 緊密했고 그 때문에 漢字文化도 상당한 水準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高句麗는 地理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当時 中國王朝와 緊密한 關係에 있었던 만큼 大陸에서 韓半島로 輸入되는 文字를 포함한 文化 스타일의

리더와도 같은 존재로 나중에 朝鮮時代의 字音에 이어지는 千年 新羅의 字音에도 至大한 影響을 끼쳤을 것이다.

韓國字音이 安定되어 있는 理由는, 日本字音은 漢字를 借用한 万葉仮名를 더욱 간소화하여 平仮名 · カタカナ를 만들고 訓讀과 音讀의 두 방법을 모두 살려서 어휘를 확장하여 文字生活을 營爲해온 데에 비해서, 韓國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鄕札 사용 時代에는 固有語를 그대로 表記하려고 했지만 漢文에의 同化가 深化되어 감에 따라서 初期 차용 단계에서부터 거의 音讀을 採擇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韓國語史에 있어서는 夫餘 · 高句麗 · 沃沮 · 東濊등을 포함한 북방계 언어와 馬韓 · 辰韓 · 弁韓의 三韓語로 구성된 남방계 언어로 大別되어 있었던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의 위업 달성을 계기로, 언어의 통일을 이룸과 동시에 漢字語가 國語 語彙의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沈在箕(1971)의 평가와도 一脈相通하는 바일 것이다.

같은 한자음이더라도 兩國에서의 수용양상이 사뭇 다른 까닭에 대해서, 文字와 傳乘에 關한 大野晋와 上田雅昭의 對談[21] 통해 그 槪略的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韓國은 中國과 地理的으로 隣接해 있기 때문에 中國쪽에서 變化가 일어나면 각 時代의 發音의 영향을 直接 수용하여 바로바로 韓國字音에 반영하게 되므로 中國風으로 發音한다. 처음에는 訓釋(鄕歌) 으로도 말을 표기 했었지만 漢學이 널리 퍼질수록 中國語의 힘이 강해져서, 이번에는 반대로 漢字의 使用方法이 中國風으로 統一되게 되어 버리게 되고 만다. 그런데,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日本은 中國과의 交涉의 역사에 있어서 斷續이 계속되는 過程에서 漢音의 시대적 변화의 수용에 있어서도 그 뚜렷한 경계선이 생겨나게 된다. 万葉仮名에도 上古音 · 吳音 · 漢音이 사용된 것처럼 오래된 層과 새로운 層이 있으며, 그것이 후대에 까지 이어져 와서 日本語의 文字使用의 特徵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 對 中國과의 交涉의 측면에서 보자면, 一世紀 前後와

21) 上田正昭 · 編 (1975) 『日本文化の探求 · 文字』東京 : 社會思想社 p. 257 ~ 293

三世紀와 五世紀에는『漢書』『後漢書』『魏志』『隨書』(600年) 에 각각 交涉의 記錄이 남아있고, 平安時代 以後는 韓半島 및 中國과 政府間 交涉이 약 100년 정도 끊겨버렸다가, 七世紀가 되자 遣隋使 · 遣唐使에 의한 積極的이고 直接的인 交流가 있었다는 것이 史實이다. 이렇게 보면 對 中國과의 交涉의 斷續과 日本字音의 形成이라는 두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진다. 즉, 日本字音은 五 · 六世紀에 형성된 吳音이 基層을 이루게 되었고, 六世紀의 교섭의 단절로 七 · 八세기에 형성된 漢音과의 層이 지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韓國字音의 경우에는 漢語의 字音의 변화는 교섭에 단절이 없었기에 輸入되는 대로 韓國 字音에 反映되어 一元化된 것이다.

Ⅱ.3.2. 韓國字音의 起源

일반적으로 韓國字音의 起源에 대해서, H.Maspero는 五世紀頃 南方字音 (新羅) 과 北方字音 (高句麗) 이 高麗時代까지는 倂存했다라는 南北混合說을 주장한다. 有坂秀世는 滿田新造가「朝鮮字音と日本吳音との類似性について」를 통해서 日本의 吳音이 朝鮮 (百濟) 을 經由하여 성립한 음이라는 主張을 인정하면서 隋唐以後, 宋代 開封地方의 音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宋代開封音說」을 주장한다. 河野六郎는「唐代長安音(秦音) 」이 基層을 이루며 그 前後의 音層도 깔려있다고 보는「重層的 成立」을 主張한다. 李京哲(2003) 은 河野六郎의 韓國字音에 대한 唐代長安音母胎說이 定說처럼 인정되는 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韓國字音의 聲類体系는 南北朝音을 母胎로 하고 있는 점과 韻類体系는 聲類와는 달리 南北朝音-切韻音-秦音의 諸層을 受容하여 複雜한 複層性」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朴柄采(1971) 및 B.Karlgren(1954)의『切音韻母胎說』과 辛容泰(1982)의『南北朝音母胎說』과도 복합적으로 關係가 있다.

韓國에서는 吏讀나 鄕札등을 中心으로 한 古代漢字音의 借用에 관한 硏究와 한글 創製 (1433年) 以後의 文獻資料를 가지고 近世音과 基層音에 대한

漢字音 硏究가 이루어져 왔다. 兪昌均(1984) 은「鄕札과 万葉仮名의 硏究」에서「鄕札」과「万葉仮名」의 比較를 통해 音과 訓의 定着過程과 文章表記法에 있어서의 同質性을「鄕歌」와『古事記』『日本書紀』「金石文」等의 奈良시대의 資料와의 比較를 통해서 証明하고 있다. 특히 韓國에 있어서는 音借 · 訓借의 表記法이「誓記体 → 吏讀 → 鄕札」의 過程을 거쳐 發達한 痕跡이 보이는 데 대해서, 일본에서는 誓記体와 類似한 構文法、吏讀와 類似한 宣命 · 祝詞、鄕札과 類似한 万葉集의 가요와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相互間의 發達過程을 분간하기 힘든 점이나, 固有名詞의 表記法같은 것도 이것들 속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서 音借 · 訓借의 方法은이미 韓半島에서 무르익어 숙련 되어 있었던 것을, 阿直岐(應陣天皇15年, 284年) · 王仁(285年) 등을 비롯한 수많은 移民者(流浪人) 들이 전파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兪昌均은 大野透가 仮名의 변천을 古層(推古朝以前에 發生한 仮名) · 中間層(奈良時代 仮名) · 新層(8世紀 長安音을 基盤으로 發生한 仮名) 의 三層으로 나눠서 作成한 用字法과, 鄕札과의 對照表를 作成하여 提示하고 鄕札과 万葉仮名의 用字法의 字類에 相当한 類似性이 있음과 万葉仮名가 시대적 推移에 따른 用字 種類의 変化를 보이는 것은 字音 자체의 변화와 日本語의 音韻変化에 起因한다고 논하였다.

예를 들어【オ類 : 意→於】의 交替는【意】가 【オ】音 表記에 利用된 것은 上古音에 기초했기 때문으로, 現代語의 音價와는 달리 非円脣母音이었던 것이 【意】가 ／ə→i/로 변화하게 되자 그 대신에 ／ə／에 가까운【於】를 利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キ(甲)類와 ギ(甲) 類의 傳寫에【支→岐 · 伎】로 交替하여 利用하게 된 것은「鄕札」에서는【／ki／＝只· /gi／＝支】를 사용했었다는 점과 關係하여 볼 때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支】는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 넘어오면서 口蓋音化[22]했다. 때문에 万葉仮

22)* 口蓋音化 : 어떤音의 調音時에、前舌面과 硬口蓋 사이가 좁아지는 現象으로 韓國語의 子音가운데 /t-(ㄷ)/、/t'-(ㅌ)/의 뒤에 母音/i//y/가 이어질 때、【/t-(ㄷ)/→ʧ(ㅈ)/】、【/t'-(ㅌ) →

名에서도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않은 【岐 · 伎】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등, 大野秀의 A時期의 万葉仮名에는 上古音의 反映이 짙게 깔려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韓半島에서 사용되고 있던 上古音의 殘滓의 一部가 日本字音에 輸入되어서 推古朝에 仮名로서 定着하고, 거기에 中古音을 접하게 되고서 새로운 層의 仮名体系를 形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23)

지금까지 漢語와 韓 · 日 字音과의 相互關係와 形成過程 및 性格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韓 · 日 字音은 어떤 한 時期에 形成되었다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中古漢語期의 政治 · 文化 · 宗教的인 背景下에서, 兩國字音의 주된 層이 成立하였으며, 時代의 흐름과 함께 重層的인 形成을 이루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初期 借用段階에서는 音借와 訓借의 方法이 兩語에 存在했었음을 古文獻을 통해 確認할 수 있었는데, 音節 數가 많지 않은 日本에서는 訓讀이라는 獨特한 音讀方法의 伝統을 유지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重層的인 字音의 堆積層과 함께 日本字音 읽기의 特徵이면서 複雜함의 原因이 되고 있다.

한편 韓國字音에서는 重層的 形成과 音讀과 訓讀의 병존이라는 동일한 要因이 있었지만 漢字로의 同化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音讀의 傳統만이 남게 되어 현대 字音에 있어서는 거의 一字一音의 대응을 보이게 되었다.

借用語이던 漢語가 音聲的 代用과 音聲的 変化라는 內的 · 外的인 要因에 의해서 韓 · 日 兩 國語에 융화되어서 文字言語 · 學術的言語 · 文化的言語 · 知的言語로써 자리매김하여 어느 틈에 外來語란 意識마저도 없이 사용되고 있

ʧ'(ㅊ)】처럼 發音하기 편하게 破擦音化하는 現象.. 例) 굳이>구디>구지 닫혀>다텨>다처
*17世紀末부터18世紀初、元來/ʧ(ㅈ)/、/ʧ'(ㅊ)/인 伝來字音과、頭子音/ t -(ㄷ)/、/ t '-(ㅌ)/가 口蓋化의 影響으로【/ t -(ㄷ)/→ʧ(ㅈ)/】、【/ t '-(ㅌ) →ʧ'(ㅊ)】로 変化한 字音과의 區別이 없어졌다 그래서 韓 · 日의 現實字音에서, 前者는【ㅈ · ㅊ:サ行 (ザ行) 】、後者는【ㅈ · ㅊ:タ行 (ダ行) 】에 대응한다. (.車柱浩(1984. p.9), 禹燦三(2002. p.122-126))

23) 兪昌均(1984)『國語學論巧』啓明大出版部 p.84-128에 의하면 大野秀는 奈良時代를 中心으로 하여 A(620年) · B(700年) · C(720年) · D(760年) 로 나누어서 字類를 分類했다.(『万葉仮名の研究』1962明治書院. p. 37

는데는 것이다. 애초 양국의 傳承字音은 母胎가 되는 中古漢音에 가능한 가깝게 발음하려고 노력했을 터이지만, 生成 · 成長 · 死滅을 거듭해 오는 동안에 韓日의 現實字音은 상당히 유사한 것도 있는 反面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發音되는 것인지를 全然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인 것도 있다. 그래서 第Ⅲ章에서는 兩國의 音讀 한자에 한해서 中古漢音 聲母의 韓 · 日의 頭子音에의 反映樣相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中古漢語 聲母의 韓 · 日 頭字音에의 反映樣相

Ⅲ.1. 中國語의 音節構造와 音韻体系

中國語는 單音節的인 言語로 中國語의 音節은 聲과 韻으로 構成되어 있다. 「聲」과「韻」은 中國語에만 適用되는 特有한 것으로서, 그 本質을 簡單히 說明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聲」이란 一音節이 시작되는 부분이며, 끝나는 부분은「韻」이라 한다. 聲을 代表하는 字母를「聲母」、韻을 代表하는 字母를「韻母」라 한다. 즉, 中國 漢語의 음절은 聲母와 韻母로 나눠지고 한 音節內의 構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MVF/T (*I 는 聲母、MVF/T는 韻母에 해당)

IMVF/T	
I (initial consonant)	ㅡ (聲母=頭子音, 中古音은 三十六字母가 있다)
M (medial vowel)	ㅡ (介母 · 介音＝韻頭 : 主母音 앞에 붙은 半母音같은 것으로 拗音介母와 合口介母가 있다.)
V (principal vowel)	ㅡ (主母音 · 中心母音＝韻腹 : 音節의 核을 이루는 母音)
F (final)[24]	ㅡ (末音＝韻尾 : 音節 마지막의 子音이나 母音)
T (tone)	ㅡ (聲調 : 平 · 上 · 去 · 入)

[表 5]-中國語의 音節構造

위와 같은 音節公式은 가장 複雜한 形態의 音節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것이므로 모든 音節이 [表5]의 다섯 개의 要素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他 [tâ] 】처럼 M과 F가 없는 簡單한 것도 있고,【明 [mïaŋ平] 처럼 다섯개의 要素를 다 갖추고 있는 音節도 있다.

中國語는 원래 表音文字가 아니었기 때문에 後漢 (二世紀 中葉)의 學者들은 어떤 한 한자의 音을 表記하기 위해서 다른 한자의 音을 利用하는, 反切法이라는 方法을 취했다. 中國語는 伝統的으로 双聲과 疊韻에 의한 反切法으로 字音을 표기한다.[25] 같은 聲母 (頭子音에 相當)를 지닌 反切上字를 모아서 하나의 字母로 하고, 같은 韻母와 聲調를 가진 反切下字를 모아서 하나의 韻으로 만든 것이다. 즉, 反切法이란 이미알고 있는 한자 두개를 이용한 漢字發音記号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東」의 反切은 <德紅切>이다. <德>([tək])을 反切上字、<紅>([hoŋ])을 反切下字라고 부르며, <切>은 反切의 略字で이다.「東」의 읽는 법은 反切上字인 <德>([tək])에서 [t-]만을 취하고, 反切下字인「紅」([hong])에서는 [-oŋ]만을 취하여, 이것들을 조합해서[tong]이라고 읽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여진 것이「三十六字母」와「二百六韻」이다.

韻書[26]는 우선 모든 漢字를 四聲別로 나누고, 聲別로 分類된 漢字는 다시 같은 韻끼리 하나로 묶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은 韻이면서 聲母도 같은 것의 順序대로 分類해서 늘여놓은 것이다. 즉, 字音을 聲母와 韻母로 나누고 거기에서 聲調를 區別하고、그 중에서도 韻母를 가장 重要視하여 서로간에

---

24) 혹은 E(ending)라고도 함. 子音語尾로는 入聲韻尾인 /-p、-t、-k/와 鼻音韻尾인 /-m、-n、-ŋ/이 있고, 母音語尾로는/-i、-u/가 있다.

25)*双聲: 音節의「聲」이 같은 것. 反切 上字와 反切 下字는 原則的으로 双聲 關係에 있다.
例) b-biaobai(表白), p-pipa(枇杷), l-lingluo(零落)
* 疊韻: 두개의 音節의「韻」이 같은 것.例) a-shafa(沙發), o-bomo(薄膜), ing-yingming(英明)
*双聲과 疊韻은 中國語 音韻의 特徵 가운데 하나로써, 이것으로 새로운「詞」를 만들 수도 있고 言語의 音樂性이 증가할 수 있으며, 聲母와 韻母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26) * 韻書 編纂이 가장 盛行했던 것은 南北朝時代. 当時 사람들이 韻律에 敏感했고, 또 그 무렵 印度 音韻學의 影響을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中國의 韻書에 관하여는「中國의 音韻과 朝鮮漢字研究」『우리민족어의 연구와 전파』 (2003) 亦樂 p. 50 參考

押韻[27]이 許容되는 音들을 基礎로 해서 수많은 漢字를 分類한 것이다.

中國語 音韻의 分類 方式은 學者에 따라 다르지만 韓·日 字音의 모태음이 되는 中古漢語의 音韻体系를 集大成한 『韻鏡』에 따르면 中國語의 音韻은 伝統的으로 三十六字母와 二百六韻으로 分類된다. 『韻鏡』은 聲과 韻을 一覽할 수 있게 作圖한 音圖로, 4 3枚의 圖表로 되어있는데 이를「4 3轉圖」한다. 43轉圖에는 韻을「十六攝」로 분류, 各圖마다에 開合 標示가 달려있다. 「開」「合」「開合」의 表示는 [i]를 포함하는 拗音介母로 合口介母를 포함하지 않은 韻이 「開」(「開口音」)이며, 合口介母[w]를 포함한 韻이 「合」(「合口音」)이다.「二百六韻」을 聲調 區別없이 같은 모양끼리 합한 것이「六十一類」이며, 이것을 다시 主母音이 비슷한 것을 묶은 것이 「十六攝」이다. 이렇게 가까운 韻을 몇 개씩 모아놓은 이 「攝」는 核母音 (V)의 資質에 따라 比較的 좁은 主母音(後舌高母音 系列) 을 포함하는「內轉8攝」와 比較的 넓은 主母音(前舌底母音 系列) 을 포함하는「外轉8攝」로 나뉜다. 韻母에 대한 고찰은 다음으로 미루어 두고,本稿에서는 聲母에 한하여 韓日字音에의 反映樣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頭子音에 해당하는 聲母는 調音点을 基準으로 하여 重脣音 (兩脣音／p、p‘、 b 、 m／)·輕脣音(脣齒音·dentals／f 、f‘、 v 、ɱ／)·舌頭音 (舌先齒莖音·alveolars／ t 、 t ‘、 d 、n／)·舌上音 (舌面硬口蓋·prepalatals/ʈ·ʈ‘·ɖ·ɳ)·牙音 (軟口蓋音·velars)·齒頭音(齒莖音·alveolars/ʦ、ts‘、dz、 s 、 z /)·齒上音 (そり齒音·retroflex/ʧ、ts‘、dz、 s /) ·正齒音(齒莖硬口蓋音·alveolar-palatals/ʨ、ʨ‘、dz、ɕ、z/)·喉音(聲門音·glottals、喩母/ʔ、x、ɣ、j/) ·半舌音 (舌先齒莖音·alveolars/l/)·半齒音 (硬口蓋·palatals/nz/) 으로 分類되며, 調音方法을 基準으로 해서는 淸 (無聲無氣音) ·次淸 (無聲有氣音) ·濁 (有聲無氣音) ·次濁 (有聲鼻音) 을로 分類된다. 調音法에 의한 分類 名称은 學者에 따라서는 淸을 全淸、濁을 全濁、次濁을 淸濁이라 칭하기

27) 押韻 : 詩歌, 韻文등의 句尾의 韻母가 同一하거나, 유사한 字를 사용하여 音이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 으로,「合轍」「轍韻」이라고도 한다.

도 한다. 제Ⅲ장에서는 頭子音 聲母를 굳이 위와 같이 細分하지 않아도 無妨하다라는 여러 선행 연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輕唇音과 重唇音은 脣音으로, 舌頭音과 舌上音은 舌音으로, 正齒音과 齒上音과 齒頭音은 齒音으로 통합하여, [脣音, 牙音, 舌音, 喉音, 齒音, 半舌音, 半齒音]의 七音系로 나누어서 그 反映樣相을 고찰하고자 한다.

[表 6] 韻鏡의 三十六字母分類表

調音点	脣音				舌音				牙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調音法	清	次清	濁	清濁	清	次清	濁	清濁	清	次清	濁	清濁	清	次清	濁	清	濁	清	次清	濁	清濁	清濁	清濁
字母	幫	滂	並	明	端	透	定	泥	見	溪	群	疑	精	清	從	心	邪	影	曉	匣	于	来	日
音価	p-	p‘-	b-	m-	t-	t‘-	d-	n-	k-	k‘-	g-	ŋ	ts-	ts‘-	dz-	s-	z-	ʔ-	x-	ɣ-	ø	l-	ɲ-
字母	非	敷	奉	微	知	徹	遵	娜					莊	初	牀	山					喩		
音価	f-	f‘-	v-	ɱ-	ʈ-	ʈ‘-	ɖ-	ɳ-					tʂ-	tʂ‘-	dʐ-	ʂ-					j-		
字母													照	穿	神	審	禪						
音価													ʧ-	ʧ‘-	ʤ-	ʃ-	ʒ-						

韻鏡에 실려 있는 中古音이 韓·日 字音의 母胎라는 說이 지배적인데[28], 中古音의 韓日字音에의 反映關係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韓日의 음운체계와 通史的인 音韻變遷過程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思慮 된다. 지금부터는 [表7] 의 中古漢語 聲母의 韓·日 頭子音에의 反映樣相을 살펴보겠다.

28)朴炳采(197 1:267)、河野六郎(1979:315) 、李潤東(1997:21)、禹燦三 (2002 : 5)

Ⅲ.2. 中古漢音 聲母의 韓·日 頭子音에의 反映樣相

韓·日 頭子音의 반영 양상과 兩語의 대응 관계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表7] 의 脣音、舌音、牙音、齒音、喉音、半舌音、半齒音의 七音系로 나누고, 調音点에 따라 分類한 各 音系 聲母別로 中古漢語와 韓·日字音의 音價 및 字數比率등을 표시해 두었다. 表內의 計量的인 數値는 禹燦三의『韓·日漢字音の比較硏究』(2002) 에서 引用한 것이며, 常用漢字音例는『學硏漢和辭典』(1982) 을 참고 하였고, 吳音과 漢音에 있어 대비를 이루는 경우는 그 音系를 표시해 두었다.

韓·日의 子音은 그 種類와 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韓國語는 有氣音과 無氣音의 對立이 存在하며, 日本語는 有聲音과 無聲音의 對立이존재하여 音韻을 변별한다는 差異가 있다. 또 中古漢音에는 有氣音과 無氣音의 對立과 有聲音과 無聲音의 對立이 存在했음에도 불구하고 韓·日 兩 國語에는 그 對立關係가 명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각 성모별 반영은 비교적 규칙적이며, 韓日 子音의 대응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傾向性은 있다고 보여진다.

Ⅲ.2.1. 脣音系聲母의 反映

唇音은 輕唇音과 重唇音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輕唇音은 切韻音 体系에는 存在하지 않았었는데 唐末 혹은五代에 北宋의 學者가 設定한 音이라고 보는 견해가 一般化된 傾向이다. 輕唇音은 唐末 北方語에서 重唇音의 一部가 唇齒音化함으로써 생겨난 音韻인데, 韓國語의 音韻体系上 그 反映音은 p-(ㅂ)이나 p'-(ㅍ)으로 나타나게 된다. 脣音系聲母의 韓·日字音에의 反映關係는 不規則的이지만 어느 정도의 傾向性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7]唇音系聲母의 反映樣相

中古音	韓國字音		日本字音	字數比率	常用漢字例
幇母/p-/ (非母/f-/)	p-(ㅂ)	64/92	h-	63/92	半鉢変百
			(b-)	1/92	番
	p'-(ㅍ)	28/92	h-	28/92	板八編波
滂/p'-/ (敷/f'-/)	p-	23/39	h-	19/39	拍翻癖紛
			(b-)	4/39	妨防朴剖
	p'-	16/39	h-	16/39	判偏片破
並母/b-/ (奉母/v-/)	p-	70/76	h-(漢)	31/76	伴飯範貧
			b-(吳)	28/76	盤拔弁別
	p'-	16/76	h-	13/76	平評弊抱
			b-	4/76	乏膨婆暴
明母/m-/ (微母/ɱ-/)	m-	90/91	b-(漢)	39/91	勉蛮晩梅
			m-(吳)	51/91	滿末面慢
	ʩ-	1	b-	1/91	秒

1) 中古音 幇母는 淸音(無氣音) 이고, 滂母는 次淸(有氣音) 이기 때문에 有氣音과 無氣音의 對立이 弁別的으로 기능하는 韓國字音에서는 淸音인 幇母는 無氣音 p-(ㅂ-)이고, 次淸인 滂母는 有氣音 p'-(ㅍ-)으로 反映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有氣音과 無氣音인 中國字音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음을 [表8]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직 韓國에 有氣音과 無氣音의 對立体系가 成立되 있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見解가 있다. 淸音(p-)、次淸音(p'-)、濁音(b-)은 韓國字音에서는 p-, p'-중에서 p-(ㅂ-)으로 의 반영이 조금 더 優勢한 편이다. (黃光吉1995 : 254、p : p'=144:59)

그런데 韓日字音의 對照에 있어서는 이러한 p-과 p'-의 混同은 별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日本字音에서는 並母(奉母)를 빼고는 p-과 p'-은 대개 h-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2) 한편, 日本字音에서는 無聲有氣音인 幇母/p-,f-/와 無声有気音인 滂母/p'-,f-'/는 대부분 h-로 반영된다. 이는 日本語 音韻體系에는 有氣音과 無氣音이 변별적이지 아니하며, 「ハ行」子音의 音價가 室町時代 以前부터 [ɸ]이었기 때문이다. 有聲音인 並母(-b) · 奉母 (-v)는 예상과 달리 規則的으로 b-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不規則的으로 h-나 b-의 兩音으로 받아

들였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日本字音의 吳音과 漢音의 淸濁對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9] 吳音의 濁聲은 唐末 以後의 母胎音의 無聲化 (b->p-) 를 反映하여, 吳音과 漢音의 淸濁對応에 있어서 漢音에서는 大部分이 淸音化했다. 이러한 現象은 淸濁對応 關係에 있는 牙音系、舌音系、齒音系 全体에 관련된 現象이기도 하다.

3) 다음으로 淸濁音인 明母 · 微母는 韓國字音에서는 規則的으로 m-으로 反映되지만 日本字音에서는 吳音에서는 m-으로、漢音에서는 母胎音의 非鼻音化를 反映하여 거의 b-로 반영된다. (* 非鼻音化 : 吳音의 母胎音인 六朝時代의 m-이 唐代에 들어서 m̆b-와 같이 非鼻音化해서 -b 에 가까운 音이 됨)

Ⅲ.2.2. 牙音系聲母의 反映

中古音에서 見母는 淸音인 無聲無氣音 k -, 溪母는 次淸音인 無聲有氣音 k ‘-、群母는 濁音인 有聲有氣音 g -로 再構된다. 그렇지만 牙音系의 韓國字音에의 反映은 唇音系와 마찬가지로 中古漢音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疑母를 제외하고는 거의 全部가 k-로 반영된다. 日本字音의 경우도 역시 疑母를 제외하고는 거의 全部가 k-로 반영됨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29)佐藤喜代治는 吳音과 漢音을 비교는 가운데 淸濁對応에 관하 ㅡ ①吳音의 鼻音은 長安(漢音)에서는 濁音化하는 傾向이 있다. ②吳音의 濁音은 淸音과의區別이 長安에서는 약해져서 漢音에서는 淸音이 되는 傾向이 있다 -고 하여 吳音의 漢音에서의 변화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 하였다. 「語彙言論」『講座日本語の語彙2』明治書院 1988 : 207~211

①	吳音	漢音	②	吳音	漢音
馬	ma	ba	大	dai	tai
微	mi	bi	就	zyu	syau
泥	nei	dei	成	zyau	sei
人	ninn	zinn	並	bei	hei
男	nan	dan	行	gyau	kau

[表 9]牙音系聲母의 反映樣相

中古音	韓國字音	字數比率	日本字音	字數比率	常用漢字例
見母 k-	k-	171/179	k-	172/179	間貫括更國
			g-	5/179	激擊剛街軍
	h-	7/172	k-	5/179	汗割革解酵
			g-	2/179	現該
	Ø-	1	k-	1/179	渦
溪母 k‘-	k-	62/70	g-	4/70	慨概拷欺
			k-		看權謙考空
	h-	5/70	k-		坑港確詰酷
	k‘-	1	k-	66/70	快
	kk-	1	k-		喫
	Ø-	1	k-		泣
郡母 g-	k-	41/42	k-(漢)	35/42	乾傑狂琴局
	Ø-	1	g-(吳)	7/42	偶
疑母 ŋ-	Ø-	52/56	g-	52/56	顔月言獄魚
			k-	4/56	研危
	h-	2	g-	1	虐
			k-	1	驗
	k-	2	g-	1	鯨
			k-	1	硬

1) 淸音(無氣無聲) 인 見母는 破裂音으로、韓日字音에서는 대체로 k-로 받아들인다. 韓國字音의 경우는 h - (例 : 汗割革解酵現該) 와 Ø-로수용된 것도 若干 있다. 이것은 諧聲聲符[30]에 의한 類推音으로 韓國字音의 俗音과 正音의 槪念으로 말하자면 俗音[31]에 해당하는 것이다.

2)有氣音인 溪母는 韓日字音에서는 대체로 k-로 반영된다. 有氣音과 無氣音의 對立이 存在하는 韓國字音의 경우, 溪母는 k‘-로 나타날 것 같지만 表內의「快」를 제외하고는 모두 見母처럼 k -로 나타난다. 그것은 前述한 바대로 有氣音과 無氣音의 對立이 아직 確立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牙音系

30) 聲符:「形聲字」의 音을 나타내는 부분。聲音。例) 「江 · 紅 · 空」의 聲符는 工
形符:「形聲字」의 意味를 나타내는 部分。例) 「河」의形符는 水、「銅」의 形符는 金

31) 現代韓國字音에는 正音 · 俗音 · 化石音의 세 類型가 있다.「正音」이란 韻書의 反切을 韓國 音韻体系에 移植한 音으로 玉編의 標準的인 音이다.「俗音」이란 中古 以後에 나타난 韻書의 反切과는 차이가 있는 音을 말하며 實際로 通用되는 現實音이다.「化石音」이란 語源的으로는 漢字語에 속하면서 固有語에 完全히 化石化하여 一般 言衆이 漢字語에서 由來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漢字音를 말한다.

k-, k'-, ŋ-은 調音位置가 가까운 喉音h-로 반영되는 경우임에 해당한다.

3) 有聲破裂音인 群母는 韓國語에는 k一나 k'-에 對立하는 g-와 같은 音素가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見母·溪母와 마찬가지로 k一로 반영된다. 日本字音에서는 吳音에 그 濁聲이 充實히 反映되어 g-로 나타나는 字例가 있으나 대부분 群母g-가 有氣音化한 長安音을 반영 하여 溪母k-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漢音의 字例가 더 많다. 또 見母와 溪母【ㄱ:が行】에 對応하는 漢字의 경우(例:激擊街軍槪欺·····), 日本字音은 全部 慣用音임을 漢和辭典에서 確認할 수 있었다.

4) 疑母는 鼻音聲母/ŋ-/이다. 韓國字音에서는 Ø-로, 日本字音에서는 g-로 반영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韓國字音에서는 語頭(初聲)에 ŋ-이 놓이지 않으므로、Ø-로 反映되지만, 15世紀『東國正音』式 表記에는 初聲에서는「ㅇ」-로 ŋ의 音價를 表記했었다. 그런데 東國正音式 漢字音 閉止 以後,「ㅇ」과「ㅇ」과의 區別이 없어지게 되자, 初聲「ㅇ」은 喩母、影母와 함께 Ø-으로 받아들여져, 終聲「ㅇ」만이 /ŋ/音價를 간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ㅇ : ア行·ヤ行】에 對応하는 牙音系의 喩母와 影母는 서로 區別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Ø-/로 나타나는 現代 韓國字音의 대부분은 日本字音의 ア行·ヤ行과 대응하지만, 語頭에 ŋ-이 Ø-로 反映되는 牙音系에서 속한 漢字音으로 ガ行(カ行) 에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

疑母는 韓國字音에서는 대부분 /Ø-/로 나타나지만, /k-/나/h一/로 나타난 경우도 몇 자가 있다. 이는 俗音을 계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日本字音에서 疑母는 吳音·漢音 모두 濁音g一로 반영되고 있는 데, 이는 当時에는 鼻音인 m-와 n-는 있었지만 ŋ-에 相當한 音이 없었기 때문에 調音点이 가장 가까운 軟口蓋音 g-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g- 이외에 k-나타나는 것은 慣用音의 反映으로 보여진다.

Ⅲ.2.3. 舌音系聲母의 反映

舌音은 /t,d,n,(r)/등의 舌端調音에 의한 破裂音으로, 韻図의 一等과 四等에 配列된 舌頭音(端母 · 透母 · 定母 · 泥母) 과, 二等과 三等에 配列된 舌上音 (知母 · 徹母 · 澄母 · 娘母) 으로 나뉜다. 等의 분류방법은 韻母와의 關係에서 口蓋的인 拗音介母가 포함되어 있으면 三 · 四等으로, 拗音介母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直音韻이면 一 · 二等으로 분류된다.

舌音은 韓國語의 경우에 淸音인 端母/ｔ/와 次淸音인 透母/ｔ‘/가 對立하여 反映될 것 같지만 實際로는 그대로 反映되지는 않는다. 舌頭音 중 端母 · 透母 · 定母와 舌上音 중 知母 · 徹母 · 澄母는 韓國字音에서는 거의 t-나 t‘-로 나타나며, 舌頭音의 泥母와 舌上音의 娘母는 n-으로 나타난다. 그 原因으로는 그 当時, 有氣音 對 無氣音의 分化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漢語의 影響으로 有氣音이 發生하기 까지는 無氣音/t/로 反映되다가, 有氣音 發生 以後부터 獨立音素로 定着해 갔기 때문일 것이라는 推論과, 【無氣音＞有氣音】의 傾向은 中國音의 影響이 아니라 韓國 固有語에서 생겨난 有氣音의 發達에 起因한 것이라는 解釋도 있다. (趙奎泰1986:17,44、兪昌均1984:263-275)

또 17世紀末부터 韓國語의 口蓋音化의 影響으로 三等 · 四等에 拗音介母 /i/가 포함되어 있는 韻 앞의 韓國字音은【ｔ(ｔ‘)-〉ʧ(ʨ)】로 변하게 되었다.

娘母·日母는 泥母에서 分化한 것이라고 한다. (李潤東(1997:33) 그러므로 次濁音 鼻音聲母인 泥母 · 娘母는 韓國字音으로는 兩方 모두「ㄴ-/n-/」으로 받아 들였다. 表內의 例外 字音「粘」은 「点」등의 漢字音에서 類推한 俗音(慣用音) 임을 漢字 辭典에서 確認할 수 있다.

日本語에는 淸音 對 濁音(無聲音:有聲音)의 區別은 있지만 有氣音 對 無氣音의 區別은 없으므로 대개 /t-/(タ行)으로 받는다. 舌頭音四等과 舌上音二 · 三等에 チ/ʧ/が가 나타나는 것은 日本語의 拗長音化[32]에 의해【デウ〉チョ

32)오늘날 日本字音에는 -オウ/o:/,ーヨウ/yo:/,ーユウ/yu:/의 세가지 長音形이 存在한다. 다음의 표와 같이 과도기를 거쳐 長音形이 通合됨으로써 漢字音에 다수의 同音異義語가 생기게 되었다.

ウ】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表 11] 舌音系聲母의 反映樣相 (*ʧ, ʨ는 口蓋化音)

中古音		韓國字音	字數比率	日本字音		字數比率
舌頭音	端母一等t-	t- (ㄷ)	28/30	t-(タト)		30/30
		t'- (ㅌ)	2/30(統鬪)			
	端母四等t-	t->ʧ-(ㅈ)	11/11	t- (テ) ʧ- (チ)		4/11 7/11
	透母一等t'-	t'-	21/25	t- (タト)		20/25
	透母四等t'-	t->ʧ-	4/10	t- (タテ)		6/10
				ʧ-(チ)		
		t'->ʨ-(ㅊ)	6/10	ʧ- (チ)		4/10
	定母一等d-	t-	45/54	t - (タト) (漢)		26/54
				d-(ダド)	(吳)	
		t'-	9/54	d- (テ)		28/54
	定母四等d-	ʧ-(ㅈ)	19/21	t- (テ)	(漢)	11/21
		ʨ-(ㅊ)	2/21	d -(ダテ)		4/21
	泥母一等n-	n-	13/13	n- (ナノ) (吳)		12/13
				d- (デ)	(漢)	1/13(泥)
	泥母四等n-	n-	7/7	d- (デ)		6/7
				t- (タ)		1/7(耐)
舌上音	知母二等ʈ-	t'-	1/1 (卓)	t- (タ)		1/1
	知母三等ʈ-	ʧ-	15/22	t- (テ)		4/22
		ʨ-	7/22	ʧ- (チ)		17/22
				ʨ- (ツ)		1/22
	徹母三等ʈ-	ʧ-	1/10 (偵)	t- (テ)		3/10
		ʨ-	9/10	ʧ- (チ)		7/10
	澄母二等ɳ-	t'-	5/7	t- (タ)		4/7
		t-, s-	2/7(茶、蛇)	d-, ts-, dz		3/7(濁,茶,蛇)
	澄母三等ɖ-	ʧ-	23/23	t- (テ)		3/33
		ʨ-	10/33	ʧ- (チ) (漢)		20/33
				dz- (ジ) (吳)		8/33
				d-, ʨ-		2/33(伝、墜)
	娘母三等ɖ-	n-	6/7	dz- (ドジテ) (漢)		3/7
				n- (ニネ) (吳)		2/7
		ʧ-	1/7 (粘)	t-, ʨ-		2/7 (匿, 賃)

旧音形(平安時代까지)	長音形 (江戸時代에確立)
①ーアウ、ーオウ、ーアフ	ーオウ (例) 甲:kaΦu>kau>ko:
②ーヨウ,ーエウ,ーエフ,ーヤウ	ーヨウ (例) 疊:deΦu>deu>dʒou>ʒo:
③ーイウ、ーイフ	ーユウ (例) 急 : kiu>kyu

例)원래 【口/kou>(koo)>ko:/】인 字音과 【高/kau>kao>kɔ:>ko:/】로 統合된 字音과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

澄母는 南北朝音 이후 舌頭音 定母d-에서 舌上音으로 분화하여 長安音(秦音)에 이르러서는 徹母ʈ-로 흡수되게 되므로, 南北朝音을 모태로 하는 吳音에서는 d-로 나타나며, 長安音을 반영한 漢音에서는 t-로 나타난다.

Ⅲ.2.4. 齒音系聲母의 反映

齒音系聲母는 中古音에서는 齒頭音、正齒音、齒上音으로 細分되지만 한국어의 음운체계상으로는 그 구별이 없어서, 韓國字音에는 破擦音系列인 精母ʧ · 照母ʨ · 莊母ʧ · 從母dz등) 는 대개 ʧ- (ㅈ-)와 ʨ-(ㅊ-)로, 摩擦音系인 s-、 z- (心母s · 審母ɕ · 山母ʃ · 邪母z · 禪母z등) 는 대개 s-(ㅅ-)로 比較的 規則的으로 反映된다.

日本字音에서는 当時 破擦音이 分化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破擦音은 摩擦音 s- 로 反映되며 吳音系에서는 z-로 나타나기도 한다.

[表 12] 齒音系聲母의 反映樣相

中古音	韓國字音	日本字音	常用漢字例
精母 ʧ- (照 · 莊母)	ʦ-(ㅈ) ʨ-(ㅊ) s-(ㅅ)	s- z- ʧ-	終作制尊足 贊責最者挫
清母 ʨ- (穿 · 初母)	ʨ- ʧ-	s-	銃吹次千齒 叱栓操雌
從母 dz- (神 · 牀母)	ʧ- s- ʨ-	s-(漢) z-(吳)	族集在存 示士術巢 賤撰層樵
心母 s- (審 · 山母)	s- ʨ-	s-	送速死省 縮借肖
邪母 z- (禪母)	s- ʧ-	s-(漢) z-(吳)	松邪習誰 席尚辭羨

Ⅲ.2.5. 喉音系聲母의 反映

喉音系 聲母는「影母ʔ-」「曉母h-」「匣母ɦ-」「于母ø-」「喩母ｊ-」가 있다. 喉頭閉鎖音인 影母ʔ-와 于母ø-、喩母ｊ-는 韓國字音에서는 거의「ㅇ」으로 反映되며,[33] 日本字音에서는 影母ʔ-와 于母ø는 거의「ア行」과「ヤ行」약간이고 喩母ｊ-는 거의「ヤ行」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舌根摩擦音인 曉母h-와 그 有聲音인 匣母ɦ-는 韓國字音에서는 거의 h-로、日本字音에서는 ｋ-로 나타나는 傾向을 보인다. 日本字音에서 曉母h-와 匣母ɦ-가 ｋ-로 나타나는 것은 고대 일본어의 ハ行音의 音價가 Φ이었기에, h와 조음점이 유사한 ｋ-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表１３］ 喉音系聲母の反映樣相

中古音	韓国字音	字数比率	日本字音	字数比率
影母 ʔ-	ø-	58/61	ア行	49/61
	k-	2/61(欧殴)	ヤ行	10/61
	m-	1/61 (湾)	ワ行	2(腕湾)
曉母 h-/ｘ-	h-	50/55	カ行	49/55
	k-	3/55(喝考減)	ガ行	4(曉犠戯減)
	m-	1/55(耗)	その他	2 (賄耗)
匣母 ɦ-/ɣ-	h-	79/88	カ行(漢)	70/88
	k-	7(褐憾茎暇壊械系)	ガ行(呉)	14/88
	ø-	2/88(完緩)	ア・ワ行(呉)	4/88(横和話惑)
于母 ø-	ø-	34/34	ア行	30/34
			ヤ行	4/30 (郵雄友有)
喩母 ｊ-	ø-	61/62	ヤ行	43/62
	s-	1(輸)	ア行	19/62

33)*朴炳采 (1982)『古代韓國語의 硏究』高麗大學校出版部 p. 57~58
「古代國語에서 影母와 喩母의 分別可能性은 있지만 實質的으로는 合流되었다고 할 수 있다.」
*１５世紀 韻書인 『東國正韻』에는 影母ʔ-는「ㆆ」로 表記되어있고, 그 音価에 대해서 訓民正音에는「ㆆ喉音如挹字初發聲」라고 적혀 있으며,「ㆆ」은「ㅇ」보다 音이 강하고 ㅎ보다는 세지 않다고 說明되어 있다. 南廣祐는 ʼㆆ初聲은 韓國語에는 전혀 쓰이지 않은, 韻書에 의한 機械的인 注音으로서의 矯正音에 지나지 않고 實際로는「ㅇ」과 동일음이라고 解釋한다.

表內의 ( ) 는 韓 · 日 字音에서 차이가 나는 常用漢字 例이다. 「影母?-」의「歐 · 毆/ou/」가 韓國字音에서 「구/ku/」로 나타나는 것은 諧聲聲符「區/ku/」의 類推에 의한 誤用音이 관용화 된 때문이다.

「曉母h-」의 韓日字音은 대개【ㅎ:カ行】으로 반영되지만 日本字音에서 g-로 나타난 曉犧戲滅의 字例는 慣用音을 常用漢字로 採擇한 때문이다. 【耗 (호>모, コウ>モウ · コウ) 】로 나타나는 것은 韓日字音의 諧聲聲符【毛(모,モウ)】의 類推에 의한 慣用音이 널리 통용되어 정착한 경우이다. (例 : 心神耗弱(れい), 消耗(しょうもう))

軟口蓋摩擦音인 匣母ɦ-의 韓日字音은 대개【ㅎ:カ行】으로 반영되지만, 韓國字音에서는 /k-/로, 日本字音에서는 /g-/나 /w-/로 조음점이 가까운 음으로 받아들인 字例도 약간 있다. 表內의 褐憾莖暇壞械系의 韓國字音이 /k-/로 나타나는 理由는 k-(ㄱ)로 반영되는 傾向인 牙音系의 見母 · 溪母의 一部가 h-(ㅎ)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과도 같은 경우이다. 趙奎泰(1986:30)는「韓國字音이 定着하기 以前은「ㅎ」의 音素가 確立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曉母h-」와「匣母ɦ-」는 가장 유사한 見母 · 溪母 · 群母에 合流되어, 「ㄱ-」으로 反映되다가, 中國 漢字音의 影響으로 점차 分化해 간 것이다.」라고 推定한다. 즉, /k-/(ㄱ)와 /h(x)-/ (ㅎ)는 그 調音点이 軟口蓋 聲門音으로 類似해서 諧聲聲符 가운데 /k-, g-(ɦ-), h-/끼리의 交替 例가 相当하며, 그에 따른 痕跡으로써 類推系 發生이 自然히 많아졌다고 한다.

日本語의 경우는 有聲音인 匣母ɦ(ɾ)-와 軟口蓋摩擦音인 曉母h(x)-는 區別없이 모두 k-로, 牙音系인 見母 · 群母와 같이 反映되지만, ガ行으로 나타나는 것은 吳音을 採擇했기 때문이고 合口介母字 /w/가 들어 있는 경우는 吳音으로 ワ行(ワ · オ · エ) 이 되는 것도 있다.

以上으로「于母ø-」 「喩母j-」 「影母?-」는 【ㅇ:ア行(ヤ行) 】으로, 「曉母h(x)-」「匣母ɦ(ɾ)-」는 【ㅎ:カ行】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Ⅲ.2.6. 半舌音聲母의 反映

半舌音인 來母(ｌ-)는 有聲 側面音으로 鼻音이나 喩母와 함께 舌音系의 淸濁音 範疇에 포함되며 韓日字音에서는 【ㄹ:ラ行】으로 規則的인 對応을 보인다. 다만, 韓國語의 경우는 頭音法則등의 音韻規則의 제약이 한자음에도 적용되어, 語頭의 /ｒ-/은 /n-/으로 바뀌며, 母音/-i/나 半母音/-j/의 앞에서는 脫落되어, 語頭에서는「ㄴ-」이나「ㅇ-」으로 나타난다. 일본어의 경우[34]는 語頭나 語頭以外에 /ｒ-/이 와도 음운의 변화는 없다.

①{ｒ-、n-} → /ø-/{#-i、#-j}		②語頭の{r-} → /n-/{條件①以外}	
整理 (せいり:정리)	理論 (りろん:이론)	敬老(ケイロウ:경로)	老人(ロウジン:노인)
観念(カンネン:관념)	念仏(ネンブツ：염불)	道路(ドウロ：도로)	路程(ロテイ：노정)
近年(キンネン:근년)	年代(ネンダイ:연대)	勤労(キンロウ：근로)	労務(ロウム：노무)
略歴(リャクレキ:약력)	歴史(レキシ：역사)	暴露(バクロ：폭로)	露出(ロシュツ：노출)
耽溺(タンデキ：탐닉)	溺死(デキシ：익사)	記録(キロク：기록)	録音(ロクオン：녹음)
隠匿 (いんとく：은닉)	匿名(トクメイ：익명)	新緑(シンリョク：신록)	緑藻(リョクソウ：녹조)
上陸(ジョウリク：상륙)	陸地(リクチ：육지)	地雷(ジライ：지뢰)	雷雨(ライウ：뇌우)
善良(ゼンリョウ：선량)	良心(リョウシン：양심)	望楼(ボウロウ：망루)	楼閣(ロウカク：누각)

Ⅲ.2.7. 半齒音 聲母의 反映

日本字音에 있어서 日母/ńź-/는 唐 以前의 切韻音系를 反映한 吳音에서는 鼻音/n-/으로, 漢音에서는 母胎音의 非鼻音化에 의한 影響으로 濁聲만을 반영하여 /z-/로 받아들임으로써 현대 日本字音에서는 兩音이 共用되고 있다.

한편 韓國字音에 있어서 日母/ńź-/는 15·6世紀 壬辰倭亂 以前까지의 文獻에서는「ㅿ /z/」로 나타나있지만, 朝鮮 中期 以後「ㅿ의 消失」과 함께 /Ø/化하여「ㅇ」으로 나타난다.

34) 『日本語教育辭典』 (1995)에 의하면 日本語에서도 한자음이나 외래어, 의성어, 의태어 등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和語에서는 語頭에 /ｒ-/을 기피하는 것이 일본어다움의 특징의 하나라고 한다.

[表 15] 半齒音系聲母の反映樣相

中古音	韓國字音	日本字音	常用漢字例
日母 /ńź-/	ø-	n-(ニヌネ) (呉)	燃熱軟忍認日任妊入肉二乳
		z-(ジズゼ) (漢)	壤然讓弱若仁人刃潤冗兒耳柔如儒
		s-	染(하나뿐임)
	s-	z-	需(하나뿐임)

그러므로 韓國語에서 「ㅇ」으로 나타나는 聲母는 疑母 · 喩母 · 于母 · 影母 와 함께 日母도 포함되며 聲母別 반영양상을 日本字音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喉音系」(表13參照) 에 속하는 聲母(「于母ø-」「喩母 j -」「影母?-」)는 韓 · 日 兩字音에서 [安心 /**Øan**-simm : **an**sin/] , [約束/**Øjak**-sok : **jaku**soku/]등과 같이 대체로 【ㅇ- : ア行(ヤ行) 】으로 반영된다.

둘째로 「牙音系」(表1 0 參照) 의「疑母/ŋ/」에 속하는 韓國字音은【ᄋ : ŋ >Ø】으로 變遷하여 韓 · 日 兩字音에서 [語學 /**øə**-hak : **g**o-gaku/]등과 같이 【ㅇ-(ㄱ-,ㅎ-) : ガ行 (カ行) 】으로 반영된다.

셋째로 半齒音인 日母/ńź-/의 경우, 韓国子音에 있어서의 【ᄉ : z>ø】로의 음운변천과, 日本字音에 있어서의 呉音/n/과 漢音/z/의 兩用의 결과로써 韓 · 日 兩字音에서【z>Ø : n , z】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兒童 /**øa**-dong : **z**i-dō/, 讓步/**øang**-bo : **zj**ō-ho/, 柔道/**øj**u-dō : **z**ū-dō/ 柔弱 /**øj**u-jak : **nj**ū-**zj**aku/, 人氣/**ø**in-kki : **n**inki/, 人物/**ø**in-mul : **z**in-butsu/와 같이 【ㅇ-:ナ行、ザ行】이 兩用되는 것도 있다.

이 日母/ńź-/를 둘러싸고 韓日字音의 기원에 관한 諸說이 분분한데 필자가 참고한 자료에 한하여 살펴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愼惠慈는『訓蒙字會』가 比較的 한글 創製 直後와 가까운 시기에 編纂된 점과 그 당시 中國音을 그대로 모방하여 표기하려 했던 다분히 觀念的이고 人爲的인『東國正韻』보다는 當時의 傳來音의 반영양상을 간직한 現實字音에 가까운 음이라는 점에서, 그 聲母를 對象으로 하여 字音을 考察하였다.

그 가운데 日母/ńź-/에 대해서 「日母는 上古音에서는 泥母와 같은 鼻音이었지만, 唐代에 들어 非鼻音化되게 되었다. 그 때문에 唐代 以前의 音을 反映하고 있는 吳音에서는 그대로 鼻音을 간직하나, 漢音에서는 唐代의 非鼻音化의 反映으로 濁音만이 나타난다. 韓國字音에서도 日母를 제외한 泥母 · 娘母 · 明母는 鼻音인 n-, m-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吳音과는 달리 日母에서는 有聲摩擦音「△」/z-/이 나타는 점을 들어, 이로써 韓國字音의 형성에 있어서의 中國 上古音과의 關係를 照明하려 했다.

有坂秀世는 日母/ńź-/의 韓國字音의 原音을 z-또는 그에 유사한 齒的 摩擦音일 것이라고 推定하고, 語頭의 日母가 齒的 摩擦音을 지니는 것은 宋代開封音을 비롯한 中國 東北方音系 諸 方言의 特徵으로써, 이러한 점으로 보아 韓國字音의 基層은 宋代開封音의 影響으로 성립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한편 河野六郎(1979 : 381)는 「日母の問題は声母のなかで、もっと注目すべきものである。それは朝鮮字音では今日すでに消失されている「△」/z-/ (/ż-/) /の音価や変遷とも関係するからである。」라고 하여 日母는 南北朝音 · 切韻音에서는 그 鼻音性이 維持되나 唐代長安音에서는 이미 ñz-의 allophone(異音)이 優勢해지다가 더 나아가서는 鼻音的 要素를 상실하여, z (ż) 가 된 것이리라고 推察했다. 氏에 의하면 新羅語의 n- · m- 에는 /nd-/ · /mb-/ 와 같은 allophone이 存在했었을 것으로 推定하여, 자연스럽게 m- · n-와 같은 鼻音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朝鮮字音의 日母/ńź-/의 反映은 唐音的인 것며, 吳音에서 오래된 鼻音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여 韓國字音과 日本吳音의 鼻音의 類似性에 대해 疑問을 提起하고 韓國字音은 唐代長安音(秦音)을 母胎로 한다는 證例의 하나로 들었다.

李京哲은 韓國字音에서 唐代長安音(秦音)의 allophone /nd/ · /mb/는 有聲音이 存在하지 않는 韓國語의 音韻体系로 미루어 볼 때 t-(ㄷ) · p-(ㅂ)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결코 m-(ㅁ) · n-(ㄴ)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推測했다. 때문에 韓國字音에서 鼻音性이 弱化된 唐代長安音(秦音)을 받아들였다면 p-,

t-로 나타나야 할 텐데 日本吳音처럼 m-·n-가 되었다는 것은 唐代長安音 以前의 音層을 母胎로 하고 있다는 証憑의 一例이라고 주장한다. 氏는 韓國字音은 聲類에 있어서는 南北朝音을 母胎로 하고 있음과, 韻類에 있어서는 南北朝音-切韻音-秦音의「複層的反映樣相」을 띤다고 보고, allophone /nd/·/mb/를 n-·m-와 같은 鼻音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河野六郎의 仮說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主張했다.(*Ⅱ.3.2.韓國字音의 起源 參照)

지금까지 中古漢音의 聲母와 韓·日字音에의 反映樣相에 대해 살펴보았다. 韓日字音의 基層과 兩國字音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주로 日母를 둘러싼 몇 가지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鼻音聲母인 明母, 泥母, 日母는 吳音의 母胎音인 南北朝音에서는 각각 mb-, nd-, nz-였는데, 漢音의 母胎音인 唐代長安音에서는 非鼻音化의 영향으로 각각 mb->b-, nd->d-, nz->z-에 가까운 음으로 변하게 되었고, 韓·日 兩字音에서는 脣音系 明母(mb->b-)는 [ロ-:マ行, バ行]로, 舌音系 泥母(nd->d-)는 [レ-:ナ行, ダ行]으로, 半齒音 日母(nz->z-)는 [ㅿ(z)>ㅇ(Ø) : ナ行, ザ行]으로 反映된다.(Ⅲ.2.1, Ⅲ.2.3, Ⅲ.2.7參照) 필자는 明母(mb->b-) [ロ-:マ行, バ行]와 泥母(nd->d-) [レ-:ナ行, ダ行]의 반영양상으로 보아, 韓國字音과 日本吳音의 類似性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로써 兩者의 因果關係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며, 兩國 字音은 中古音을 基層으로 하면서 上古音과 近代音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3. 韓日 頭子音의 對應 및 異同 關係에 대한 考察

本項에서는 앞서 살펴본 中古音 聲母의 韓日 字音에의 反映樣相과 兩國의 음운변천을 단서로 하여, 韓日 頭子音의 對応關係를 조명하고, 특히 그 가운데서 兩 國語에 있어 기대와 달리 서로 차이가 나는 字音에 注意를 기울여 그 異同의 원인을 考察하고자 한다.

Ⅱ.1.1.에서 前述한 바 대로 中國語의 音節構造는【IMVE / T】로, 한

漢字의 一音節內의 構造는 聲母 (I) 와 韻母 (MVE/T) 의 두개로 나뉜다.

韓國語는【初聲＋中聲＋終聲】의 音節構造를 갖고 있으며, 19個의 子音과 單母音이 10個、二重母音이 12個、半母音이 2個로, 그 反映關係는 日本語보다는 훨씬 複雜할 것이다.

日本語는【C(子音) ＋V(母音) 】의 비교적 單調로운 開音節構造[35]를 갖고 있으며 18箇의 子音과 單母音이 5箇, 半母音이 2箇로, 한국어 보다는 그 反映樣相이 복잡하지 않다.

日本語의 子音音素로는 一般的으로 閉鎖音/p/,/t/,/k/,/b/,/d/,/g/、摩擦音/s/,/z/,/h/、破擦音/c/、鼻音/n/,/m/,/ŋ/、流音/r/、母音/w/,/y/、特殊音素/N/,/Q/ 등의 １８個가 인정되고 있다.

韓 · 日 · 中 三國의 音系는 정확히 一致하지는 않지만 子音音素를 調音点과 調音者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表 16] 韓 · 日의 子音 分類表 (* 特殊音素 · 半母音등은 除外)

	唇音系		舌齒音系(前舌))				牙音系(後舌)		喉音系	
調音者	兩唇音		齒(槽)音		硬口蓋音		軟口蓋音		聲門音	
調音点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破裂音	ㅂ ㅃ ㅍ	バ パ	ㄷ ㄸ ㅌ	タ ダ			ㄱ ㄲ ㅋ	カ ガ		
破擦音				チ ツ	ㅈ ㅉ ㅊ					
摩擦音			ㅅ ㅆ	サ ザ					ㅎ	ハ
鼻　音	ㅁ	マ	ㄴ	ニ			ㅇ	ン		
流　音			ㄹ	ラ						

韓國語와 日本語의 子音体系의 비교에 있어서 音韻的인 차이로서는 日本語에는 破裂音과 摩擦音 系列에 【無聲音：有聲音】의 對立이 存在한다는 점과 韓國語에는 氣 (aspiration)와 緊張(tenseness)의 有無에 의한【有氣音：無氣音】의 對立 (/p//t//k/：/ p‘//t‘//k‘/) 이 음운 변별적 機能을 갖는다는 점을

35)古代日本語는 [c+v]의 開音節뿐으로, 現代日本語에도 90%정도가 開音節이며,撥音과 促音으로 인한 閉音節은 10%정도라고 한다.

첫째로 들 수 있다. 이러한 差異는 中古音의 反映樣相 및 兩國字音의 대응관계에도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韓國語의 19個 子音 가운데 ㄸ-, ㅃ-, ㅉ-을 제외하고 漢字音에 나타나는 頭子音의 수는 16개이다. 筆者는 선행연구(禹燦三、辛容泰、玄淑子、李京哲、黃光吉등)의 調査 結果를 참고로, 일본한자 읽기 사전에서 頭子音의 대응 유형별로 字例를 抽出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16개의 頭子音과 日本字音과의 對照를 통해 대응관계를 比較하면서 그 異同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아래의 [表18]의 字數가 一致하지 않는 것은 日本字音이 두개 이상의 音讀方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선행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複數의 音讀방법 중에서 言衆으로부터 勢力을 얻어, 보편화된 音(音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少數에 지나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다.

[表 17] 韓 · 日 頭子音의 對応關係

	韓國字音(k)	日本字音(j)	字數比率(%)	漢字例	例外字 (k : j)
1)	ㄱ-, ㅎ- ㅋ- ㄲ-	カ行(345) ガ行 (71) カガ行 (10)	394/440 (89.5) 39/440 (8.8)	冠結改解 劇慨嚴該 快 喫	歐毆 [ku : ō] 横 [hoing : ō] 惑 [hok : waku] 和話 [hwa : wa] 賄 [hoi : wai]
2)	ㄴ-	ナ行 (17) ダ行 (20)	16/23 (69.6) 6/23 (26.1)	難年念能 男女泥暖	耐[nai : tai]
3)	ㄷ-,ㅌ-	タ行 ダ行	90/124 (72.9) 34/124 (27.4)	多單代頭 脫打脫土	
4)	ㅅ- ㅈ- ㅊ-	サ行(38 8) ザ行(8 6) サザ行 (35) タ行(チ,テ)	424/652 (65.4) 107/652 (16.4) 111/652 (17.0) 7/652 (1.1)	先社新手 稅獸準舌 神生自治 天哲聽廳	輸 [su : ju] 秒 [ts‘ : bjō] 粘 [tsəm : nen]
5)	ㄹ-	ラ行	97/97 (100)	來例辣量	
6)	ㅁ-	マ行 バ行 マ行 · バ行	36/96 (54.2) 45/96 (44.8)	滅末門毛 默母貿物 万米聞無	湾 [man : wan]
7)	ㅂ- ㅍ-	ハ行 (140) バ行	177/218 (81.2) 41/218 (18.8)	半非步判斷 乏膨暴芭便	
8)	ㅇ-	ア行 ヤ行 ガ行 ザ行 ナ行	101/254 (39.8) 58/254 (22.8) 53/254 (20.9) 19/254 (7.5) 13/254 (2.4)	亞案宇 夜由余 岩嚴樂 善讓耳 人忍燃	匿 [øik : toku] 賃 [øim : tsin] 染 [øjəm : sen] 腕 [øwan : an]

1) [ㄱ,ㅎ : カ行、ガ行] 으로 대응한다. (表10參照)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常用漢字內에서 ㄱ-, ㅎ-은 대개「カ行」,「ガ行」에 대응한다. 例外字인 [歐毆/kuːō/]는 韓國字音 [區/ku/]의 類推音으로 인해 日本字音과 달라지게 된 것이다.

横 [hoingːō]、惑 [hokːwaku]、和話 [hwaːwa]、賄[hoiːwai]의 異同은 다음과 같은 세력을 얻은 字音体系의 採擇에 基因한다.

横 [呉音 : ō] [漢音 : コウ] 例)横断(おうだん)、横柄(おうへい)、横暴(おうぼう)、縦横(じゅうおう)

惑 [呉音 : ワク] [漢音 : コク] 例)困惑(こんわく)、迷惑(めいわく)、,幻惑(げんわく)、惑星(わくせい)

和 [呉音 : ワ] [漢音 : カ] [唐音 : オ] 例)和睦(ぼく)(ワボク)、和尚(おしょう)

話 [呉音 : エ] [漢音 : カ] [唐音 : ワ] 例)童話(どうわ)、対話(たいわ)、話題(だい)

賄 [呉音 : ケ [漢音 : カイ] [慣用音 : ワイ] 例)賄賂(いろ)(ワイロ) ,贈賄(ぞうわい)

위의 韓國字音h-로 漢音k一와 대응이 一致함을 알 수 있다.

2) [ㄴ- : ナ行、ダ行] 으로 대응한다. (表11參照)

中古漢音泥母와 娘母의 n-은 [ㄴ-:ナ行 (呉音)] 과 [ㄴ-:ダ行 (漢音)] 의 對応관계에 있다. [ㄴ-:ナ行] 의 對応은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ㄴ-:ダ行 (漢音)] 의 對応은 中古音의 非鼻音化에 의한【nd->ňd-】와 같은 n-의 弱化가 漢音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日本字音의 경우는 前述한 바와 같이 地理的인 條件과 外國과의 交涉의 斷續에 의한 音層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지어져서, 오늘날까지 두 가지의 音讀방법이 전해져 오는 것이다.

例)[長男 (チョウナン : 呉) , 男子(ダンシ:漢)] , 懸念(ケネン:呉)

[内外 (ナイガイ:呉), 境内(ケイダイ:漢)] , 暖房(ダンボウ:漢)

韓國字音의 경우에는 舌音系의 泥母 · 娘母의 反映音인「ㄴ」이 初聲에 나타날 때는 頭音法則의 影響으로 【每年 [me-nyən] - 年末 [øyən-mal]】과 같이 「ㄴ」이 語頭子音에 놓이는 것을 꺼려하여 「ㅇ」으로 바뀐다. 이와 같은 例로는 이외에도 【雜念-念佛, 拘泥-泥巖 · 泥炭, 放尿-尿道, 男女-女

子】등을 들 수 있는 데 일본자음에 있어서는 頭音法則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語中 · 語尾에서나 語頭에서나 변화 없이 /n-/이므로, 日本語로 바꿀 경우, 母國語의 干涉 때문에 「年末」을 [エンマツ]와 같이 發音할 우려도 있다.

[耐 내 : タイ(慣) , ナイ (吳) , ダイ (漢)] 는 일본어의 慣用音이 言衆으로부터 세력을 얻게 된 데에 기인한 兩國子音이 相違이다. 例) 忍耐(にんたい)

3) [ㄷ-,ㅌ- : タ行、ダ行] 으로 對応한다. (表12參照)

中古音舌音系聲母는 韓國字音에서는 n-으로 反映되는 泥母 · 娘母와 口蓋化音을 제외하고는 대개 [ㄷ-,ㅌ-:タ行、ダ行] 로 나타난다. 拗音介母가 포함된 三 · 四等韻의 場合는 口蓋音化하여 대개 [ㅈ-,ㅊ- : テ- (デ-), チ- (ヂ-)] 으로 대응한다. 舌音系聲母의 대응관계를 더욱 자세하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ㄷ-,ㅌ-의 뒤가 [C+V]의 開音節構造인 경우, 母音의 對応關係의 類型은 [-a : -a][ai : ai], [o,u : o(ō)]으로 나타난다.

* [ta · t'a : ta] 他 · 多 · 打, [ta · t'a : da] 駄 · 墮 · 妥

* [tai · t 'ai : tai] 對 · 胎 · 泰 · 態 · 待 · 怠 · 袋 · 隊 · 帶 · 貸

* 代 [tai: dai · (tai)]-代価(だいか) 代案(だいあん) 代役(だいやく) 代用(だいよう) 代理(だいり) 代議士(だいぎし) 代替(だいたい) 等

- tai는 稀代(きたい)(=希代(きだい)라고도 함)하나 뿐

* [tai: tai · dai] 大

-大國(たいこく) 大學(たいきょ) 大綱(たいこう) 大氣(たいき) 大量(たいりょう) 大部(たいぶ) 大使(たいし) 大切(たいせつ) 大雪(たいせつ) 大差(たいさ) 大言(たいげん)

大局(たいきょく) 大國(たいこく) 大軍(たいぐん) 大別(たいべつ) 大尾(たいび) 大勝(たいしょう) 大亂(たいらん) 大陸(たいりく) 大略(たいりゃく) 大役(たいやく) 大漁(たいりょう) 等

-大胆(だいたん) 大難(だいなん) 大同(だいどう) 大同(だいどう) 大道(だいどう) 大豆(だいず) 大胆(だいたん) 大吉(だいきち) 大刀(だいとう) 大根(だいこん) 大脳(だいのう)

大名(だいみょう) 大理石(だいりせき) 大小(だいしょう) 大將(だいしょう) 大衆(だいしゅう) 大腸(だいちょう) 大地(だいち) 大体(だいたい) 大腿(だいたい) 大丈夫(だいじょうぶ) 等

* [tai: tai · dai] 台

-舞台(ぶたい) 屋台(やたい) 台風(たいふう) 台頭(たいとう) 台風(たいふう) 台湾(たいわん)

-見台(けんだい) 鏡台(きょうだい) 平均台(へいきんだい) 番台(ばんだい) 台本(だいほん) 台所(だいどころ) 台地(だいち) 台帳(だいちょう) 台盤(だいばん) 天文台(てんもんだい)

灯台(とうだい)　土台(どだい)　砲台(ほうだい)　流台(ながしだい)　踏台(ふみだい)　断頭台(だんとうだい)　涼み台(すずみだい)　飛び台(とび)　立ち台(たち)　等

* [to : tō] 刀·到 · 島 · 陶 · 桃 · 逃 · 倒 · 稲 · 逃 · 悼 · 濤
* [tu : to] 斗 , [t'u : tō] 投 · 透 · 闘
* [tu:zɯ · tō(dō)] 豆-大豆(ダイズ) 納豆(ナットウ) 豌豆(エンドウ) 等
* [tu : zɯ · tō (to · do)]

-語頭(ゴトウ) 音頭(オンド) 等

* [to : to] 徒 · 塗 · 途 · 賭 · 渡, [t'o : to] 討 · 吐

[to : to (tsɯ)] 都-(tsɯ는 都合(つごう) 하나 뿐)

* [to : dō]導, [to : dō (tō)]道(tō는 神道(しんとう) 하나 뿐)

② [C+V+C(-ŋ,- p)]의 閉音節構造인 경우 [子音+ō] 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当 t ang : taΦu>kō], [答 tap : taΦu>tō]처럼 日本音韻의 ハ行轉呼와 長音化의 影響으로 日本字音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 党糖 · 湯 · 東冬凍棟 · 統筒 · 登等騰謄[tang · t 'ang · tong · t'ong · tung: tō]
* 堂 · 同銅動洞童憧胴瞳[tang · tong : dō]
* 單短丹端鍛 · 嘆炭探誕[tan · t'an : tan] 豚敦頓[ton: tō]
* 胆担 · 探眈耽[tam · t'am : tan]

貪[t'am : tan · don]-貪吏(タンリ : 漢) 貪欲(ドンヨク : 慣)

* 答踏 · 搭[tap · t'ap : tō]

①과 ②의 대응관계를 다른 子音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4) [ㅅ-,ㅈ-,ㅊ- : サ-、ザ-、タ-] 으로 대응한다.

韓國字音 / 日本字音	ㅅ- (257)	ㅈ- (261)	ㅊ- (134)	例外字
サ行	424/652 (65.4%)			輸 [su : ju] 秒 [ts' : bjō] 粘 [tsəm : nen]
ザ行	107/652 (16.4%)			
タ行 (テ · テに多い)	111/652 (17.0%) * 口蓋音化のため			
ダ行	7/652(1.1%)			

「ㅅ-」은 대개「サ行」에 대응하며, 「ㅈ-」「ㅊ-」은 「サ行」以外에

「タ行」에도 대응한다. 本來 摩擦系 齒音 s-, z- 는 「ㅅ -」으로, 破擦系 齒音ts-,ʨ-,ʧ-,dz-는 대개 ʧ- (ㅈ-)와 ʨ-(ㅊ-)로 반영되고 日本字音에서는 当時 破擦音의 未分化로 破擦音은 摩擦音에 흡수되어 s-, z-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현대 韓國頭子音ㅈ-(ㅊ-)중에는 18世紀에 發生한 口蓋音化의 영향으로 인하여 舌音字 t-, t'-(ㄷ,ㅌ) 중에서 齒音字ʧ-, ʨ-(ㅈ,ㅊ)로 변화하게 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원래 齒音字로써 サ行 · ザ行에 對應하는 漢字와 舌音字였는데 口蓋化하여 ʧ-, ʨ-(ㅈ,ㅊ)로 변화하였지만 일본자음은 구개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대로 タ行 · ダ行에 대응하는 漢字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現代 韓國頭子音 ㅈ-(ㅊ-)은 「サ(ザ) 行」과 「タ (ダ) 行」의 두가지 대응이 共存하게 된 것이다. 【ㅈ-(ㅊ-) : サ(ザ) 行】의 例는 [戰 · 專 · 千 · 正 · 贊 등]을 들 수 있고, 【ㅈ-(ㅊ-) :タ (ダ) 行】의 例는 [典 · 点 · 鐵 · 点 · 天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韓 · 日頭字音에서 [sa(사), tsa(자), ʨa(차):si (シジ) sja(シャジャ)]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그것은 韓國中世語에서 일어난 母音「·/ə/」의 消失과 관계가 있다. 15世紀 中期부터 시작되어 17世紀에 그 音價가 完全히 消失된 母音「·」의 影響으로 母音調和 규칙이 무너지는 등, 韓國語의 母音体系는 일대 混亂을 가져왔다고 한다. 그 母音「·」의 消失로 「ㅏ/a/」가 된 漢字音 가운데, 齒音系 頭子音 [s-(ㅅ), ʧ-(ㅈ), ʨ(ㅊ)]와 結合할 경우는「-ㅣ/i/」와 對応하고 齒音系 以外의 頭子音과 結合할 경우는「-ㅗ/o/」와 對応한다. (禹燦三 2002 : 137) 즉, 齒音系의 韓日子音은 [死 /sa : si/] [資 /ʧa : si/] [次 /ʨa : dzi/]와 같이【-a :- i】로 대응하고, 齒音系 以外의 頭子音은 [刻 /kaku : koku/] [紺/ kam : kon/] [恨 /han:kon/]과 같이【-a : o】로 다른 대응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社 /sa : sja/] [者 /ʧa : sja/] [蔗 /ʨa : sja/] [邪 /sa : zja] 등과 같이 韓 · 日 字音에서 [sa(사), ʧa(자), ʨa(차) : sja, zja(シャ, ジャ)]로 대응하는 것은 韓國語의 單母音化 때문이다. (車柱鎬1984 : 25) 韓國語의 口蓋

子音「ㅈ,ㅊ,ㅅ」의 뒤에 先行하는 母音[i]는 20世紀에 들어와 廣範囲하게 脫落하여, [ja, jə, jo, ju jəi]등의 重·複母音이 [a, ə, o, u]의 單母音으로 바뀌게 된다. (劉昌惇1980:172) 그러므로 日本字音과의 대응 單母音化 以前에 複母音[ja, jə, jo, ju]이었음을 고려하면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즉, 韓國字音 sa, ʧ, ʦ(사, 자, 차)는 單母音化 以前에는 [ㅅ, 샤, , ㅈ, 쟈, 차, ㅊ, 챠] 같은 音이었는 데, 母音「·/ə/」의 消失과 單母音化의 影響으로 日本字音과 차이가 생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口蓋音化에 의해 【ㄷ-(ㅌ-)/{-i,-j} > ㅈ-,ㅊ-】으로 변화한
字音은【タ行 (ダ行) 】과 대응한다.

例)的敵適·典轉展殿顚·伝殿田電·点店·定停·天·鐵哲鐵綴徹·
添·逮体遞滯諦·····　등

②「·」의 消失에 의해 【ㅅ, ㅈ, ㅊ > 사, 자, 차】로 変化한 齒音系
字音은 【シ、ジ】와 대응한다.

例) 死師史私思使仕司詞士四斯賜飼 [sa : si]　寺事辭似辭時[sa : zi]
雌姉子紫資刺激諮 [za : si]　慈字磁自[za : zi]　次[ʦa : zi]

③短母音化에 의해【샤, 쟈, 챠 > 사, 자, 차】로 음운변화한
字音은 【シャ、ジャ】와 대응한다.

例) 謝、社、者、遮、邪、蛇···등

④음운변화 없이 本來 「사」「차」였던 漢字는 「サ」와 대응한다.
例 : 唆詐砂査···差 (少ない)

5) [ㄹ- : ラ-] 로 대응한다.

[ㄹ- : ラ-] 의 대응은 100% 일치한다. 단, 앞서 살펴본 바대로 語頭에 「r-」이 올 경우, 韓國子音은 頭音法則의 제약으로 인하여 「ㄴ-」「ㅇ-」으로 변하는 데 대해, 일본자음에 있어서는 頭音法則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語中·語尾에서나 語頭에서나 변화 없이 /r-/이므로, 日本語로 바꿀 경우, 母國語의 干涉 때문에「料理(りょうり)」를 [ようり]나 「勞働(ろうどう)」

을 [のうどう]와 같이 發音할 우려도 있다. (Ⅲ.2.6 半舌音聲母의 반영 參照)

6) [ロ- : マ-、バ-] 으로 대응한다.

中古漢語 鼻音聲母인 明母는 /m>ṁb-/ 으로 변천했으며, 日本字音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각각 マ行(吳音)과 バ行(漢音)으로 반영되어, [ロ-(94字) : マ行(36字), バ行(45字), マ行 バ行(13字)] 로 韓國字音에서는 非鼻音化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例)魔摩磨[ma: ma] 馬[ma:ba]

味魅未[mi: mi] 美微尾媚[mi:bi]

眉[mi: bi (mi)]-焦眉(ショウビ) 白眉(ハクビ) 眉間(ミケン, 하나뿐)

米[mi : bei · mai]-米國(ベイコク) 歐米 (オウベイ) 新米 (シンマイ) 古米 (フルマイ)

務霧[mu : mu] 撫舞誣[mu:bu]

無[mu: mu · bu]-無法(無法) 無産 (ムサン) 無言 (ムゴン) 無緣(ムエン) 等

-無器用(ブキヨウ) 不氣味(ブキミ) 無道(ブドウ) 無礼(ブレイ) 等

枚妹每埋味[mai:mai]

7) [ㅂ-, ㅍ- : ハ-、バ-] 으로 대응한다.

韓國字音의 ㅂ-,ㅍ-에 대응하는 日本字音은 バ行 · パ行이 아니라 거의ハ行(81.2%)에 대응함을 表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ハ行 子音의 音價가 吳音 · 漢音의 輸入 当時는 Φ이었으나 나중에 摩擦音化하여 [ハ行: Φ-> h-]로 변화 했기 때문일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ㅂ-과 ㅍ-의 대응을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字音	日本字音	漢字例
ㅂ- (157字)	ハ行 (113字) バ行 (34字) ハ行 バ行(13字)	反変百非保仏癖 剖朴培爆坊凡部 歩貧病不白博煩
ㅍ- (60字)	ハ行 (53字) バ行 (5字) ハ行 バ行 (2字)	八肺幅表判編布 乏膨爆暴芭 板平

8) [ㅇ- : ア-、ヤ-、ガ-] 로 대응한다.

「ㅇ」에 대한 일본자음의 대응은 중고음의 어느 聲母를 반영 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樣相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ㅇ-:ア行] 으로의 대응이 101字(39.8)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頭子音 뒤에 重母音[ja, ju, jo]가 올 경우는 [ㅇ-:ヤ行] 으로 對應 (58字22.8%)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ガ行] 의 대응(53字20.9%)은 中古漢語 疑母/ŋ/가 韓國字音에서 [ㅇ-/ŋ/>ㅇ/Ø/]로 變化 함으로써, 語頭의 /ŋ/音價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日本子音과 차이가 생긴 경우이다. (Ⅲ.2.4-5 의 牙·喉音系 聲母의 反映關係參照)

[ㅇ-:ザ行 (19字 7.9%)] 과 [ㅇ-:ナ行 (13字 2.4%)] 의 對応은 中古漢語 半齒音 日母에 해당하는 漢字에서 나타난다. 日母/ńz-/는 日本字音에서는 前述한 바대로 唐 以前의 切韻音系를 反映하는 吳音에서는 鼻音性을 지닌 /n-/으로, 漢音에서는 그 鼻音性을 상실하고 濁聲만을 간직한 /z-/로 받아들이게 되어 現代字音에 이르기까지 兩音이 共用되고 있다. 그런데 韓國字音에서는 16世紀 以後 「ㅿ 의 消失」과 함께 그 音價가 「ㅿ /z>Ø/」로 변화함으로써 日本字音과 차이가 생긴 경우이다. (Ⅲ.2.7 半齒音聲母의 反映關係參照)

참고로 半舌音 來母(ㄹ-)는 韓日字音에 있어서 【ㄹ:ラ行】 즉, /r/로 規則的인 대응을 보이지만 韓國語의 경우는 頭音法則 · 子音同化등의 音韻規則에 의해서 母音/-i/ 나 半母音/-j/ 앞에서는 「ㄹ->ㅇ」으로 바뀌거나, 語頭에 /r-/이 놓이는 것을 기피하여 /n-/이 되거나 한다. 그 結果, 語頭의「ㄹ/r/」이 「ㄴ-,ㅇ-」으로 변하는 경우, 語頭에 /r-/이 와도 변하지 않는 日本字音과 차이가 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Ⅲ.2.6 半舌音聲母의 反映關係參照) 이와 같은 사실은 舌音系 泥母 · 娘母의 反映인 [ㄴ : ナ行 · ダ行]의 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음을 想起할 수 있다.

이상으로「ㅇ」에 대응하는 일본자음은 「ㄴ」「ㄹ」의 頭音法則등에 의한 變化音까지를 포함하면 [ア行 · ヤ行 · ガ行 · ザ行 · ナ行 · ダ行 · ラ行]으로 다양하며 常用漢字 1945字 중에서 「ㅇ」頭子音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상으로 상당히 큰 편이다.

[ㅇ : ア行 · ヤ行 · ガ行 · ザ行] 이외의 例外的 대응을 보이는 경우는 匿 [øik : toku], 賃 [øim : tsin], 染 [øjəm : sen], 腕 [øwan : an]의 字例가 있다. 匿 (Øiku : toku)]은 中古漢語 娘母/n/이 韓國字音에서는 頭音法則에 의해【匿 /nik > Øik/ 】으로 変化한다. 日本字音에서는 吳音으로는「ナ行」이고 漢音으로는「ダ行」으로 反映되어 【匿 /ニョク (吳) : ジョク (漢) : トク (慣) /】인데, 그 중에서 慣用音【匿/toku/】이 優勢한 音으로 定着했기 때문이다.

[賃 (Øim : ʧin)]도 역시 上述한 「匿」과 마찬가지로【賃/ニム (吳) : ジム (漢) : チン (慣) /】가운데, 慣用音【賃/チン/】이 勢力을 얻어 定着했기 때문이다.

[染 (Øyəm : sen)]은 韓國字音이 ㅿ의 消失로 인하여【染/zyəm >Øyəm/】으로 바뀌었고, 日本字音은 【染/ネン (吳) : ゼン (漢) : セン (慣) /】인데 그 중에서 優勢한 慣用音【染 /セン/】이 定着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韓 · 日 頭子音의 對應關係과 異同의 原因등을 살펴보았다. 韓日의 頭子音은 中古漢語와의 反映樣相과 관련하여 自國나름의 음운체계 및 音韻 變遷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類似한 音韻對應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相違한 音韻對應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類似한 對應	相違한 對應(*표시는 소수 字例뿐인 것)
ㄱ ㅋ ㄲ : カ行 ガ行 ㄴ : ナ行 ㄷ ㅌ : タ行 ダ行 ㄹ : ラ行 ㅁ : マ行 ㅂ ㅍ : バ行 (약간) ㅅ ㅈ ㅊ : サ行 (대부분) ㅇ : ア行 (대부분) ヤ行	ㄱ : ワ行(*欧(おう) 毆(おう)) ㄴ : ダ行 タ行(*匿(とく)) ㅁ : バ行 ワ行 (*湾(わん)) ㅂ ㅍ : ハ行 (대부분) ㅅ ㅈ ㅊ : ザ行 (약간) ㅇ : ガ行 ザ行 ナ行 ㅎ : カ行 (解(かい) 會(かい) 海(かい) 江(こう) 鄕(きょう) 등 다수) が行 (行(ぎょう) 曉(ぎょう) 犧(ぎ) 戲(げ) 号(ごう) 등 약간) ア行 (*黃(おう) 凰(おう) 橫(おう) 會(え)) ワ行 (*話(わ) 和(わ) 賄(わい) 惑(わく))

Ⅴ. 結論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韓國과 日本의 字音의 傳來 및 形成過程과 兩國 字音의 母胎가 되는 中國漢音의 韓日 兩國語에의 反映樣相을 考察하고, 韓日 兩國 字音의 대응 관계를 照明해 보았다.

韓日 兩國에 한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中古漢語期의 字音을 母胎로 하여 自國의 음운체계와 음운변천 過程에 따라 오늘날 韓日 字音은 類似한 것도 있지만 相異한 것도 나타나게 되었다.

日本에서는 漢字를 간소화하여 仮名를 만들고 音讀과 訓讀의 양쪽 방법을 多彩롭게 活用해서 語彙의 擴張에 利用했으며, 大陸과 떨어진 地理的 條件上 交流의 斷續에 따른 重層的인 字音層의 堆積으로 인한 複數의 音讀 방법이 형성되었다. 그 主流를 이루는 것이 吳音과 漢音으로, 吳音은 日常用語와 仏教系 用語로써, 漢音은 學文과 儒教系 用語로써 주로 定着했으며, 近代以後 言衆으로부터 勢力을 얻은 字音側이 常用漢字音으로서 채택 되었다. 複雜多岐한 日本字音과 달리 韓國字音은 韓國에도 원래 訓釋의 方法이 있었지만 中國과의 끊임없는 交涉 過程속에서, 音讀의 方法으로 굳어져 一字一音의 안정적인 字音 對応 原則이 형성되었다.

中古漢語期의 聲母와 韓日 頭子音에의 반영양상을 考察한 바, 子音體系의 未確立으로 有氣音 對 無氣音이나 有聲音 對 無聲音의 대립이 명확히 반영되지는 않으나 각 성모별로 비교적 규칙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中古音과의 反映樣相을 둘러싸고 韓日字音에 대한 諸說이 대두되고 있는데, 兩國 字音은 中古音을 基層으로 하면서 上古音과 近代音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聲母와 韓日 頭子音의 비교에 있어서는 日本吳音과의 類似性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吳音에서는 有聲音·無聲音이 구별되어 그 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漢音과 韓國字音에서는 공통적

으로 無聲音으로 反映되고 있어, 吳音과 漢音의 어느 한쪽만으로는 韓日字音의 因果關係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聲母의 韓日 頭子音에의 반영양상을 토대로 韓日 頭子音 間의 對應關係를 照明한 바, 兩國 頭子音이 차이가 나는 경우의 主 要因은 음운체계상의 차이와 音韻變遷에 따른 字音의 변화, 보편화 된 慣用音의 채택 등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日本語의 習得時, 類似한 대응을 이루는 字音의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相異한 대응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韓日의 音韻體系와 音韻變化 등에 따른 결과임을 이해하여 字音 對應의 原理를 파악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漢字를 일본어 습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母音과 末子音에 해당하는 韻尾에 대한 연구를 筆者의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 參考文獻

兪長玉(1994)「日韓兩國語の漢語の對照研究」『語文學研究』7
曉星女大外國語大研究所
愼惠慈「韓國韓字音に殘された中國上古音的な特徵」亞細亞文化研究　第5輯
沈在箕 (1993)「漢字の構造と造語力」　『國語生活』第8号

權宅龍　譯 (1997)『漢語語音史 (中國語音韻史) 』대일: 原著-王力
南廣佑 (1973)『李朝漢字音의 研究』一潮閣
文璇奎 (1987) 『中國古代音韻學』民音社
朴炳采 (1982) 『古代國語의 研究』高麗大學校出版部
오일주 (2002) 『韓國學術社叢書1-國語學研究50年』혜안
禹燦三 (2002) 『韓日漢字音の比較研究』韓南大學校
兪昌均 (1984) 『國語學論巧』啓明大學校出版部
_____ (1996) 『國語學史』螢雪出版社劉昌惇 (1980)
劉昌惇 (1980) 『李朝國語史研究』半島出版社
李京哲 (2003) 『韓 · 日漢字音体系의 比較研究』보고사
李基文 (1998) 『國語史概說』太學社
李得春教授教職從事40주년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2003)
『우리 민족어의 연구와 전파』　亦樂
李潤東 (1977)『韓國漢字音に關する研究』螢雪出版社
趙奎泰 (1986)『古代國語音韻研究』螢雪出版社
한재영 (2003)『韓國語發音教育』 翰林出版社
許　雄 (1986)『國語學』샘문화사

金永佑(1998) 「日本語教育における漢字指導の問題」『釜山女大論文集第26輯』
朴美鏡(1998) 「韓 · 日漢字의 表音体系에 관한 比較研究」慶南大學校
朴正一(1988) 「韓 · 日漢字語의 比較研究」韓國外大論叢제6輯
辛容泰(1980) 「「韓 · 日漢字音比較」,國際大論文集第8輯)
禹燦三(1997) 「日本の常用漢字の音訓についての歷史的研究」
車柱鎬(1993)「韓 · 日漢字의 比較-常用漢字를 중심으로」
『釜山慶尙專門大論文集』13号
_____(1984) 「韓 · 日漢字の比較」啓明大學校

黃光吉(1995) 「韓・日漢字音の對応關係」檀國大論文集第29輯
黃慈仁(1983) 「日本語의 漢字研究-韓國語의 漢字語와의 意味對照를 中心으로」
『紀傳女子專門大學論文集』第3輯
玄淑子(1987) 『韓・日漢字音の比較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村上賢一(1998) 「韓日漢字語彙의 比較研究:系譜別漢字語彙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大学院
射場光晴(2000)「韓日漢字의 比較-常用漢字를 中心으로」韓南大学校大学院

曺喜哲(1994)「漢字系學習者のための漢字教育のありさま一韓國人の日本語學
習者を中心に」『世界の日本語教育』4國際交流基金日本語國際センター
文化廳 (1995) 「和語漢語」『言葉シリーズ』 8 大藏省印刷局
石田敏子(1995) 『日本語の教授法』大修館書店
上田正昭(1975) 『日本文化の探求・文字』社会思想社
大 野 晋(1983) 『日本語の世界 1 -日本語の成立』中央公論社
紀田純一郎(1986) 『大漢和辞典を読む』大修館書店
河 野 六 郎(1979) 『河野六郎著作集2』「朝鮮漢字音の研究」平凡社
国際交流基金(1995)『教授法入門』凡人社
阪倉篤義 (1975) 『シンポウジウム日本語③日本語の意味・語彙』学生社
鈴木敏夫 (1995) 『日本語教育辞典』大修館書店
貝塚茂樹 (1983) 『日本語の世界 3 -中国の漢字』中央公論社
松村 明 (1975) 『シンポウジウム日本語①日本語の歴史』学生社
三樹 彰 (1993) 『日本語語学-漢語・漢字の位相』七月号 明治書院
水谷静夫 (1989) 『文字表記と語構成』朝倉書店
野村雅明 (1984) 『日本語の働き』 (株) 筑摩書房
中田祝夫 (1983) 『日本語の世界 4 -日本の漢字』中央公論社
藤堂明保 (1984) 『学研漢和大事典』大修館書店
盛岡建二 (1975) 『シンポウジウム日本語④日本語の文字』学生社